Issues in Development

개발과 이슈

제78호 | 2023. 10월

개발협력기관 ESG 지표 체계 분석 연구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WORLD FRIENDS KOREA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국국제협력단은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우호협력 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이슈』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최근 연구 및 정책을 소개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는 비정기간행물입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는 KOICA ODA 전자도서관(lib.koica.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에는 제3자에게 권리(저작권)가 있는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이용 허락은 사용자가 권리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하에 인용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표기 바랍니다.
이기환. 김현진. 이지아. 김규리. 박지수. 윤유리. 2023. “개발협력기관 ESG 지표 체계 분석 연구” 개발과 이슈, no. 78.

※ 본 자료는 KOICA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자

이기환 _ 이에스지프로 공동대표 / lkh100@esgpro.co.kr

김현진 _ 이에스지프로 공동대표 / esgpro02202@esgpro.co.kr

이지아 _ 이에스지프로 ESG사업팀장 / esg@esgpro@co.kr

박지수 _ 한국국제협력단 SDG 프로그램팀 전임 / pjs2308@koica.go.kr

윤유리 _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센터 과장 / yyoon@koica.go.kr

개발협력기관 ESG 지표 체계 분석 연구

목차

연구 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연구범위

Ⅱ. ESG 평가체계 개요
1. 평가체계 등장 배경
2. 평가체계 현황
3. 해외 ESG평가체계
4. 국내 ESG평가체계

Ⅲ. 평가지표 체계 비교분석

Ⅳ. ESG 경영사례 비교분석
1. 국내 공공기관 ESG 이행 사례
2. 해외 원조기관 ESG 이행 사례
3. 소결

Ⅴ. 결론
1. 개발협력기관 ESG 설계 방향 제안
2.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기업의 글로벌 경영/경제환경에 있어 ESG는 지나가는 유행이 아닌 매우 중요한 경영 전략이 되었다. ESG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시대적 결과물이다. 더 나아가 각 국가들이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발표하고 ESG 투자 시장의 확대가 되면서 ESG 생태계 조성이 필요해졌다. 즉,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요구에 따른 ESG 개념의 확산, 기업 및 공공기관의 실천 의지와 노력, 목표 달성 수준과 이행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시도가 복합적으로 연계됨에 따라 ESG와 관련된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 국내외 많은 ESG 평가체계로 인해 부담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민간 영역에 이어 공공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이 나타나는데, 공공기관에 정부 정책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주체자로서 ESG 경영 선도 역할을 기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ESG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과 다르게 공공기관은 이미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있고, 투자 기회가 없는 등 시장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ESG 경영을 어떻게 실천 및 대응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개발협력기관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기존의 ESG 평가지표 현황을 분석하고 개발협력기관 성격을 반영한 ESG 관리지표 발굴이 필요하다.

현재 ESG와 관련한 많은 평가체계, 가이드라인 등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ESG 관련 이니셔티브가 존재하고 있다. 주요 ESG 이니셔티브는 ① 어떤 목적 및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② 기업이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실행 촉진(Execution), 정보공시(Reporting), 평가(Evaluation)인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실행 촉진(Execution)에는 ISO 26000, UN SDGs, UNEP FI, K-ESG 가이드라인 등이 있으며, 정보공시(Reporting)에는 GRI, ISSB, TCFD, SASB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Evaluation)에는 DJSI, MSCI, CDP, KCGS, Sustinvest 등이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해외 평가체계인 DJSI, MSCI, 정보공시인 GRI, ESRS, 그리고 국가 ESG 평가인 World Bank와 한국의 ESG 평가체계로 KCGS, Sustinvest와 가이드라인인 K-ESG를 살펴보았다. 평가체계들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중요하게 보고 기업이 속한 산업의 주요 이슈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평가하고 있었으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별 세부 이슈를 공개하게끔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업(기관)의 ESG 경영을 위한 관리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평가체계의 지표들을 종합하여 총 128개의 진단항목을 기반으로 ESG 지표를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경제 및 지배구조 지표는 6개 분류의 총 35개 진단항목으로, 환경 지표는 12개 분

류의 총 51개 진단항목으로, 사회 지표는 8개 분류의 총 43개 진단항목으로 정리되었다. 유형화 분석 이후 빈도수에 따라 국내 및 국외 특성지표, 국내외 공통지표를 도출하여 각 평가체계에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KOICA는 국내 공공기관임과 동시에 개발협력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공공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해외 원조기관 프랑스(AFD), 호주(DFAT)의 ESG 경영사례를 분석하였다. KOTRA는 국내외 기업과 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기업(기관) 선정 시 ESG를 고려하고 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 고유 비즈니스 성격을 반영하여 ESG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KOFIH는 전 세계 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린 ODA 사업과 같이 ESG를 고려하여 고유 사업을 변화시켰다. 국내 공공기관은 외부의 요구와 경영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ESG 경영 전략과 조직체계 수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기관의 고유 성격을 반영하여 조직의 경영 관점에서 ESG 경영을 확대하였다.

해외 원조기관인 AFD와 DFAT은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ESG를 수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AFD의 경우 UN SDGs 달성을 목표로 사회공헌, 지역사회가 주로 연계되었으며 환경과 관련된 이슈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DFAT의 경우 보유 전략과 연계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보호 및 강화와 관련된 활동으로 확인되었다. AFD와 DFAT의 사업에서 ESG와 연계된 부분은 크게 환경의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수자원 관리, 사회의 안전, 인권, 지역사회 개발로 볼 수 있다. 즉, 국내 공공기관은 기관의 경영 관점에서 ESG에 접근하고 실질적인 이행은 주요 사업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었으며, 해외 원조기관의 경우 사업을 통한 ESG 경영 수행이 기관 ESG의 중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OICA는 공공기관이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특수성이 있기에 ESG 이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에서의 복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KOICA는 기관 비전에 SDGs 달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ESG 경영 전략 수립과 함께 이행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어 실적을 집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ESG 지표들과 국내 공공기관, 해외 원조기관의 사례를 통해 KOICA는 대체적으로 기관의 조직 및 운영 측면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KOICA의 사업이 ESG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SG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조직 운영 차원의 평가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ESG 이행 및 참여자에 ESG 인식 제고 및 ESG 확산에 대한 평가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며 단계적으로 관리지표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I. 서론

1. 연구 배경

기업의 글로벌 경영/경제환경에 있어 ESG는 지나가는 유행이 아닌 매우 중요한 경영 전략이 되었다.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을 비롯한 많은 자산운용기관에서의 'ESG를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에 따라 ESG 투자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글로벌 ESG 투자 규모는 2016년 약 22조 8천억 달러에서 2021년 말 기준 37조 8천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를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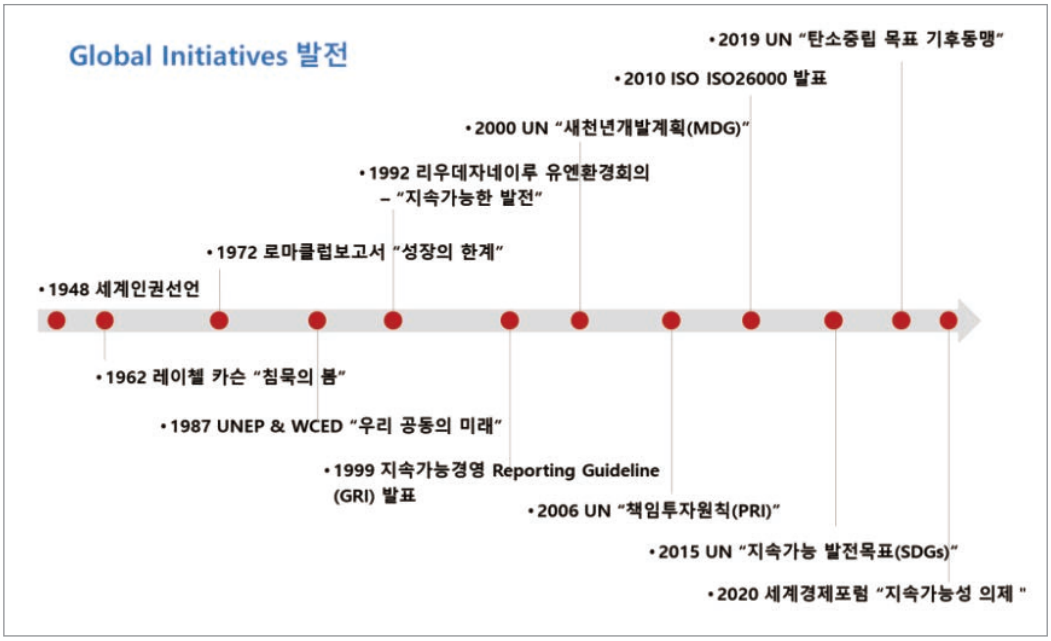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재무적 활동뿐 아니라 비재무적 활동도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개념이다(UN 2004). 기업은'이윤추구'를 위해 만들어진 특수집단으로 매출 확대, 원가 절감 등을 통한 이익 증대를 본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활동,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불신은 높아졌고,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강한 요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COVID-19, 글로벌 기후위기, 사회 양극화 심화와 같은 거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인권, 안전, 환경 등 ESG와 관련된 리스크는 서로 연계되고 기업 경영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대 이슈가 되었다(박영석 외 2021). 소비자들도 가치소비, 신념행동주의(Meaning Out)와 같은 변화된 인식과 행동을 표명함에 따라 이제 기업은 리스크 관리와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고려하는 경영이 필요해졌다. 따라서 기업만의 성장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 함께 성장하는'공동의 성장'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Stakeholder Value Maximization).

한편 ESG는 최근에 주목받으면서 새롭게 생겨난 개념이 아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시대적 결과물이다. <그림 1>에서 논의된 변화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면, 인권의 중요성에 관한 세계인권선언[1], 경제, 환경, 사회(Triple Bottom Line)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확장되면서 책임투자원칙(Principle Responsible Investment, PRI)[2],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3]3 등 다각화된 시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를 위한 활동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

1)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문으로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세우기 위한 선언
2) 유엔 환경계획 금융부문(UN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과 유엔 글로벌 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의 협력으로 수립된 투자 시 책임성을 제시하는 투자원칙(Russell Investments 2021)
3) 2015년 70차 UN총회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지속가능발전포털)

는 필수요건으로 ESG가 자리 잡으면서 기업의 생존 문제로 ESG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21).

〈그림 1〉 글로벌 이니셔티브 발전 단계



ESG 경영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각 국가에서 ESG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및 법규가 발의되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EU, 미국, 중국, 한국 등 선진 국가들은 공시 시기만 다를 뿐 기업의 ESG 경영 정보공개 의무화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에 따라 환경에 관련된 법과 정책이 많이 발표되었는데, 그 예로 EU에서 2023년 3월 16일에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및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 등이 있다. 이러한 법은 2050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공조 노력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2030년까지 EU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청정 기술의 최소 40%를 역내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핵심원자재법에서는 2030년까지 유럽 내에서 주요 원자재 연간 소비량의 10% 이상을 채굴, 40% 이상을 가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을 공감하여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유정민 외 2022). 그린뉴딜(Green

New Deal)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환경정책 및 재정정책이다(이주관 외 2021). 한국은 2020년 한국판 그린뉴딜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고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 에너지 확산 등 3대 분야와 8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적용하는 산업 업종도 점차 확대하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기업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오염물질 배출 저감, 온실가스 간접배출(Scope 3) 관리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즉, 각 국가가 나서서 ESG와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는 흐름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을 제공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국가별 ESG 공시 의무화 법규

국가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내용
EU (유럽연합)	• 2018년부터 기업의 재무적 요소 → 비재무적 정보의 공개 지침 확대 • 2025년부터 모든 상장사로 공시 의무 범위 확대
미국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ESG 관심이 증가 • '20년도 ESG 펀드 포트폴리오가 ESG 목적에 부합하는지 명시 의무화
중국	• 2020년 홍콩 상장사 대상 ESG 공시 의무화 발표 • 2025년까지 금융업계 대상 TCFD 기준에 따른 ESG 공시 의무화 •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활동과 비재무적 공시 의무
한국	•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 대상 ESG 경영 정보 공개 의무 •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 대상 ESG 경영 정보 공개 의무

ESG 정보공시 의무화와 ESG 투자 시장의 확대 등으로 인해 기업의 ESG 경영은 이제 활동 및 성과에 대한 검증과 평가의 요구에 직면하였다(오세경 2022). 또한 기업의 ESG 경영성과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익 변동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므로 불확실성이 많은 환경에서 기업의 ESG 성과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Hwang et al 2021). 투자자, 파트너사 등 이해관계자들은 기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업 투자나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ESG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으로써 기업의 ESG 데이터를 요구하는 투자자의 수요가 증가하였다(Van Duuren et al 2016).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이 경영평가에 ESG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KPMG 2021), 기업은 ESG 평가에 대한 대응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기업의 ESG 경영 정보 공개에 따라 기업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는 비교 가능해야 하며, 투자 관점의 의사결정에 중

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합의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ESG 평가는 필수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은 국내외 많은 평가로 인해 부담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ESG 평가지표는 약 600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해외에는 UN PRI, GRI, MSCI, ESRS 등, 국내에는 한국ESG기준원(KCGS),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국민연금 등에서 ESG 평가 및 표준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고 상이한 평가 기준에 따라 기업은 '대응을 위한 대응'에 치우치게 되고, 이는 ESG 공시 범위 및 내용 간의 불일치로 인해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의사결정에 혼란을 유발하고 일관성을 저하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이인형 2021).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에 국내 기업의 ESG 도입 및 평가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K-ESG 가이드라인은 국내외 주요 13개 ESG 평가기관이 사용하는 3,000개 이상의 세부 측정항목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 시작된 ESG는 정부도 함께 나서면서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으로 공공 영역까지 생태계가 확대되었다(이태호 외 2022). 이와 같은 흐름은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주체자로서 역할 때문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ESG와 연계한 전략 수립과 ESG 공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23). 그러나 공공기관은 ESG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85.5%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ESG 성과 창출과 평가지표 적용 등의 어려움으로 ESG 경영 전개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강철구 외 2022).

민간기업과 다르게 공공기관은 이미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있고, 투자 기회가 없는 등 시장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ESG 경영을 어떻게 실천 및 대응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등 민간기업과 차이점이 있기에 ESG 평가지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발협력기관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일반 공공기관과는 또 다른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모든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ESG 관리 영역 및 항목과 특정 산업 또는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ESG 항목을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ESG 평가지표 현황을 분석하고 개발협력기관 성격을 반영한 ESG 관리지표 발굴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범위

본 연구는 2022년도 '개발협력 관점에서 본 ESG 연구'의 후속 연구이다. 기존의 ESG 평가시스템 및 K-ESG 가이드라인은 영리기업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영리 성격의 공공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제한적 및 제약적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개발협력기관의 특성에 맞는

ESG 지표체계 적용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KOICA는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반영에 기여'에 기관의 목적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의 구조적 특성과 함께 개발협력기관이라는 특수한 활동 영역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에 있어 ESG 경영을 어떻게 해석하고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대응 및 전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 및 국내 주요 평가기관의 ESG 평가지표 체계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개발협력기관에 맞는 ESG 지표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국내 유사 공공기관 및 해외 원조기관의 ESG 경영사례 분석을 통해 ESG 경영 추진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KOICA ESG 지표 설정 및 ESG 경영 개선사항 도출에 관해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ESG 평가지표의 등장 배경 및 현황, ESG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의 ESG 지표를 선행 연구자료 등 문헌조사를 통해 검토 및 연구한다. 둘째, 국내외 주요 ESG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 지표의 비교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 셋째, 국내 공공기관과 해외 원조기관의 정책 문서, ESG 관련 경영전략자료 등의 사례조사를 통해 ESG 경영전략, ESG 경영활동, ESG 경영성과 등을 분석한다. 넷째, 문헌조사와 비교분석을 기반으로 개발협력기관에 적용 가능한 ESG 경영 관리 지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Ⅱ. ESG 평가체계 개요

1. 평가체계 등장 배경

기후변화 및 경제위기 등 전례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공감대 및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 및 기업 또한 공동의 목표 이행에 있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다양한 비즈니스와 활동에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연계한 ESG 경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ESG 투자 시장이 확대되고 기업의 위험 관리 대응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기업의 ESG 활동 및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ESG 평가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ESG 평가는 ESG 정보를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결과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ESG 평가를 활용하여 조직의 현 수준을 파악하여 전략 등을 고도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요구에 따른 ESG 개념의 확산, 기업 및 공공기관의 실천 의지와 노력, 목표 달성 수준과 이행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시도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됨에 따라 자연스레 ESG와 관련된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가. 공동의 목표 이행

전 인류가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역설적으로 환경과 인류의 삶은 위협받게 되었다. 공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 대응의 필요성과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의 정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의 결과로 '공동의 목표 이행'이 등장하게 되었다. 공동의 목표에는 1987년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4]이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의 욕구 충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WCED 1987). 이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5], 기후변화협약[6] 등이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개발과 환경,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논의는 UN의 새천년 개발계획(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7],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는 경제성장 속에서 전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어떤 한 국가나 기관의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

4) 1987년 개최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제시된 「우리들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브룬트란트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졌으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됨
5)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선언'으로,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27개의 행동원칙
6)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협약
7) 2000년부터 시작된 유엔(United Nation, UN)이 밀레니엄 정상회의(Millenium Summit)에서 채택한 의제로 15년간 빈곤퇴치를 목표로 1990년~2015년까지 8개 목표, 18개의 세부목표, 48개의 지표가 있음

기업, 단체, 정부, 소비자 등이 다양한 주체들이 동참해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나.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공동의 목표 이행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증가, 과거에는 없었던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8]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 연구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위기에서 ESG 성과가 좋은 기업은 경제적 위험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회복력이 높았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Zhou et al 2021). 따라서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성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영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도 경영 측면에서 많은 전환을 이뤄냈다. 기업은 ESG 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SDGs 달성을 위한 목표 수립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DGs는 사회발전을 위한 글로벌 의제로 누구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환경, 인권, 교육, 평화 등의 주제로 인류의 삶이 개선되는 목표로 구성된다. ESG는 환경, 인권, 동반성장, 성평등, 부패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과 사회 전체 이익의 향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즉, ESG와 SDGs의 공통된 기반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사람, 사회, 지구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국제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글(Google)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육기관에 무료 구글 앱 계정을 제공함으로 SDG 4(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구글 홈페이지). 또한 금융 플랫폼 기업인 탈라(Tala)는 시중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30억 명의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 이력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유엔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 탈라는 이를 통해 SDG 5(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 권한 강화), SDG 8(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경제 참여 기회 제공)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사회공헌활동 등의 측면에서 SDGs와 연계한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개발협력기관은 SDGs를 사업 추진에 대한 글로벌 기준이자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국가의 개발협력기관에서도 기관 차원에서 SDGs와 사업을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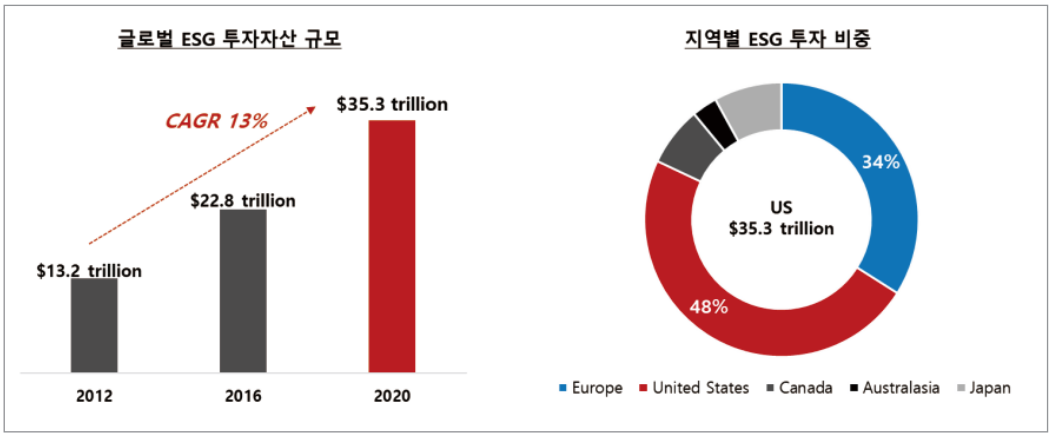
8)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미래에도 지속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보며(이정기 2020),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성의 의미의 맥락은 같은 것으로 봄

의 경우 SDGs 달성 촉진이라는 큰 전략 방향 아래 10대 분야별 중점분야와 환경, 성평등, 인권 등 6가지의 범 분야에서 SDGs를 사업에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 ESG 투자 증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금융/투자기관은 기업의 가치 평가 및 투자에 있어 ESG 측면의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ESG 투자[9]는 투자를 할 때 재무적 요소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 방식을 의미한다(IMF 2019). ESG 투자가 기업의 ESG 성과를 통한 장기적인 수익 창출에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기업은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재무적 가치와 함께 비재무적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전 세계 ESG 투자 자산 규모는 2020년 기준 $35.3 trillion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 영미권 시장은 약 48% 수준을 차지하는 등 급격한 증가 경향을 보인다(GISA 2021). 또한 책임투자 이니셔티브(UN PRI)에 가입한 기관이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4,902개 사로 2021년 대비 28% 증가하였다(PRI 홈페이지).

<그림 2> 글로벌 ESG 투자 규모



자료: GISA 2021

공적연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에서의 ESG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유럽의 네덜란드 연기금 및

9) ESG 투자, 지속가능투자, 사회책임투자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하고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투자와 ESG 투자가 일반적으로 폭넓은 전략을 포함하고 있음(Fidelity). 본 연구에서는 언급한 투자 개념들이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연속성이 있으며 명확하게 그 뜻을 구분하지는 않음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 연기금을 중심으로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ESG 투자원칙 수립과 ESG 투자를 내재화하였다(여은정 2019). 국내 또한 ESG 투자 규모는 약 272조 원이며 우리나라의 3대 연기금[10]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2021년 기준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증가하였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2022). 연기금 및 운용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와 ESG 투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ESG 정보공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2. 평가체계 현황

ESG는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관련한 경영을 의미하며 전 세계적으로 기업은 ESG 경영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때 기업은 ESG 경영을 추진하면서 어떤 목표에 따라 달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검증받기 위한 평가체계 등을 필요로 한다. 현재 ESG와 관련한 많은 평가체계, 가이드라인 등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ESG 관련 이니셔티브가 존재하고 있다. ESG에서 자주 언급되는 ESG 이니셔티브(Initiatives)[11]는 기업의 ESG 관련 활동에 대한 촉진을 위한 규약, 가이드라인, 지지, 참여, 지침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ESG 평가체계와 이니셔티브는 ESG 데이터를 평가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것과 ESG와 관련된 실천사항, 지침 제시한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ESG와 관련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성, 지표 등을 포함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업은 이니셔티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실제 이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받기도 한다. 또한 많은 평가기관에서 통용되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지표를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니셔티브와 평가체계는 연계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니셔티브를 좀 더 큰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각 ESG 이니셔티브는 제정 성격, 활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목적이 있다. <표 2>의 주요 ESG 이니셔티브 현황을 살펴보면 ESG 이니셔티브가 ① 어떤 목적 및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② 기업이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실행 촉진(Execution), 정보공시(Reporting), 평가(Evaluation)인 3가지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10) 우리나라 3대 연기금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이 있으며 공적연기금으로 투자 운용을 하고 있음
11) 이니셔티브(Initiatives)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문제해결 또는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을 의미

〈표 2〉 ESG 이니셔티브 현황

실행 촉진(Execution)	정보공시(Reporting)	평가체계(Evaluation)
• ISO 26000(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NEP FI(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 K-ESG 가이드라인 • UN Global Compact • PRI(Principle Responsible Investment • RE100(Renewable Energy 100)	• GRI(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 KCGS(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 서스틴베스트(Sustinvest) • B-CORP(B Corporation)

자료: 저자 작성

실행 촉진(Execution)에는 ISO 26000, UN SDGs, UNEP FI, K-ESG 가이드라인 등이 해당한다. ISO 26000은 국제사회의 문제해결 및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7개 주제의 세부 지침[12]을 제공하고 있다. ISO 26000의 주요 목적은 조직에 사회적 책임이 필수 요소임을 인식시키고 관련 활동을 권장하는 데 있다. 기업은 ISO 26000을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에 각 주제와 쟁점 사항에 따라 자가진단과 점검으로 활용할 수 있다. UN SDGs는 전 세계의 빈곤 문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UN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하는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SDGs는 전 세계가 지켜야 하는 약속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ESG 경영을 위한 목표 달성을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다. UNEP FI는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로 파리 기후협약과 UN SDGs 이행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 기업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 510개 금융사가 함께 UNEP FI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지속가능금융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K-ESG 가이드라인은 국내 ESG 가이드라인으로 기업들이 주요 평가기관들이 사용하는 공시방법, 항목별 평가 기준에 대한 항목해설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이니셔

12) ISO 26000의 7개 주제는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 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이며 그 하위에 총 37개의 쟁점사항이 있음

티브들의 공통점은 ESG 경영을 위한 목표와 가이드를 제공하여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기업(기관) 또한 이니셔티브 가입, ESG 진단을 통해 그들의 활동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즉, 각 이니셔티브는 강제성은 없지만,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ESG 경영의 실행 촉진 도구로 볼 수 있다.

정보공시(Reporting)에는 GRI, ISSB, TCFD, SASB 등이 해당한다. 기업은 ESG 경영 현황 및 성과를 공시할 때 GRI, ISSB, TCFD, SASB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s)는 지속가능경영 정보공시 국제 기준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표준 및 지침서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GRI 가이드라인에 따라 ESG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GRI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 주제(Material Topic), 공통 항목(General Disclosures), 분야별 항목(Specific Disclosures)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기업들의 ESG 공개 정보에 대한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ISSB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에서 발표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SG 공시기준이다. 최근 2023년 6월에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하였으며 이 기준은 강제성은 없지만, 국제 공시기준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CFD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공개 협의체로 기업들이 단순 지지하는 것을 넘어 TCFD 권고안에 따라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와 목표 4대 영역을 기준으로 단독보고서, 연례보고서,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자발적 공시를 하고 있다. SASB는 77개의 산업별로 공시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참고하여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GRI 가이드라인, ISSB, TCFD, SASB 등의 공통점은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유형과 세부내용을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정보공시로 구분될 수 있다.

평가(Evaluation)에는 DJSI, MSCI, CDP, KCGS, Sustinvest 등이 있다. DJSI는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로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ESG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ESG 평가지수로 국내외 많은 기업이 DJSI 평가에 대응하고 있다. KCGS는 기업이 공시한 ESG 정보 등 공식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기업별 종합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에서 현황 수준의 등급을 매긴다. CDP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 기업, 정부 등 조직이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줄였는지를 표준화하여 평가한다. 이외에도 MSCI, KCGS, 서스틴베스트 등은 기업들의 ESG 경영활동 및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제시하고 진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공통점은 기업의 ESG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평가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3. 해외 ESG 평가체계

가. DJSI(S&P dow Jones)

DJSI는 1990년대 후반 기업들이 ESG의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실천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성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평가방식이다. 미국의 금융정보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다우존스(S&P Dow Jones)와 스위스 지속가능경영 평가사인 로베코샘(RobecoSAM)에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13]를 개발하였다.

DJSI 평가방법은 기업의 산업별 구분에 따라 구성된 설문지를 제공하여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평가항목은 공통 평가지표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로 구분된다. 대개 80~1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산업별 기준을 적용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DJSI는 DJSI 월드 지수, 아시아·태평양 지수, 코리아 지수 등의 인덱스로 평가결과가 구분되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륙별 상위 기업들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S&P는 S&P 글로벌 ESG 스코어[14]도 부여하는데 전 세계 시가총액의 95%에 해당하는 7,300여 개 기업의 ESG 점수를 제공하고 있다.

DJSI는 평가방법을 DJSI CSA(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15])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방법 및 지표를 고도화한다. DJSI의 전반적인 평가지표는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표 3>에 제시하였다. 2023년의 주요 지표 업데이트 사항은 <표 4>에서 제시하였으며 주요 핵심은 기존지표의 고도화 및 중복된 지표의 최소화이다. 신규지표로 공개된 투명성 및 공시 지표는 2023년 신규지표로 기존 질문 중 환경 및 사회 정보공시, 정보의 검증, 지속가능분류체계를 통합한 지표이며, 기존에 보고 범위를 지역별 보고와 통합 보고로 구분했을 때 발생하는 검증 및 정보공시 검토 내용의 중복을 줄이고자 하였다. 신규지표로 공개된 운송 수단 탈탄소화 지표는 연료 효율성 및 배출량의 측정, 운송 수단의 GHG(온실가스) 집약도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며, 항공, 기차, 해상, 도로에서 발생하는 탈탄소화 및 저탄소 연료 활용, 기술의 활용과 관련된 정보를 알기 위해 지표를 신규 개설하였다. 또한 DJSI는 <표 5>와 같이 62개의 산업을 분류하고 있으며,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계산된 가중치를 산업별로 배정한 정보는 공개하고 있는데, 예시로 <표 6>의 식

13) S&P 글로벌이 1999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기업을 경제, 사회, 환경, 지배구조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반영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지속가능성 지수 집합으로 전 세계 상위 10% 기업만 선정하여 평가. 평가결과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줌
14) S&P 글로벌이 로베코샘의 ESG 평가사업을 2019년에 인수한 후, 2020년 5월에 개발한 서비스로 평가결과를 구체적인 점수로 나타내며 기업의 지속가능성과에 대한 척도를 의미. DJSI는 지속가능경영을 잘하는 기업을 묶어서 지수로 제시하며, S&P 글로벌 ESG 스코어는 점수로 제시한다는 데 특징이 있음
15) 전 세계 기업을 평가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를 의미하며, 참가 기업이 제출하는 상장 및 비상장 자료를 평가하는 설문지로 구성됨

음료 산업의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볼 수 있다.

〈표 3〉 DJSI 지표

거버넌스 및 경제 Governance & Economic	환경 Environmental	사회 Social
Transparency & Reporting	Environmental Policy & Management Systems	Labor Practice Indicators
Corporate Governance	Emissions	Human Rights
Materiality	Resource Efficiency & Circularity	Human Capital Development
Risk & Crisis Management	Waste	Talent Attraction & Retention
Business Ethics	Water	Occupational Health & Safety
Policy Influence	Climate Strategy	Access to Healthcare
Supply Chain management	Biodiversit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Tax Strategy	Product Stewardship	Sustainable Marketing & Brand Perception
Information Security / Cyber Security & System	Food Loss & Waste	Privacy Protection
Availability	Fleet Decarbonization	Addressing Cost Burden
Innovation Management	-	Health Outcome Contribution
Product Quality & Recall Management	-	Marketing Practices

자료: S&P Global ESG Research center 2023 참고하여 저자 구성

〈표 4〉 DJSI 지표 주요 업데이트 항목

거버넌스 및 경제 Governance & Economic	환경 Environmental	사회 Social
기업 윤리	생물다양성	자산 폐쇄 관리
기업 지배구조	기후전략	포용금융

거버넌스 및 경제 Governance & Economic	환경 Environmental	사회 Social
위험 및 위기 관리	이동수단 탈탄소화	산업안전보건
정책 영향력	저탄소 전략	고객 관계 관리(CRM)
지속 가능한 금융	광물 폐기물 관리	인적자원관리
공급망 관리	제품 책임	콘텐츠에 대한 책임
(신규) 투명성 및 공시	물 관련 위험	사회적 영향

자료: S&P Global ESG Research center 2023

〈표 5〉 2023 DJSI CSA 산업 분류

산업 분야		
AIR 항공	ALU 알루미늄	ARO 항공우주 및 방위
ATX 자동 구성 요소	AUT 자동차	BLD 빌딩 제품
BNK 은행	BTC 바이오테크놀로지	BVG 음료
CHM 화학물질	CMT 통신 장비	CNO 카지노 & 게임
COL 석탄 및 소모성 연료	COM 건설 자재	CON 건설 및 엔지니어링
COS 서비스 등급 개인 제품	CSV 다양화된 소비자 서비스	CTR 용기 및 포장
DHP 가정용 내구성	DRG 제약	ELC 전기 유틸리티
ELQ 전기 구성품 및 장비	FBN 다양화된 금융 서비스 및 자본 시장	FDR 식품 및 스테이플 소매업
FOA 식품	FRP 제지 및 임산물	GAS 가스 유틸리티
HEA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 및 서비스	HOM 홈빌딩	HOU 생활용품
ICS 상용 서비스 및 용품	IDD 산업 대기업	IEQ 기계 및 전기 장비
IMS 인터랙티브 미디어, 서비스 및 홈 엔터테인먼트	INS 보험	ITC 전자 장비, 계기 및 구성품
LEG 레저 장비 및 제품과 가전제품	LIF 생명과학 도구 및 서비스	MNX 메탈 & 마이닝
MTC 헬스케어 장비 및 용품	MUW 멀티 및 수도 유틸리티	OGR 정유 및 가스 정제 및 마케팅

산업 분야		
OGX 정유 및 가스 업스트림 및 통합	OIE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PIP 석유 및 가스 저장 및 운송
PRO 프로페셔널 서비스	PUB 미디어,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REI 주식 및 부동산 투자
REM 주식 및 부동산 개발	REX 레스토랑 & 레저 시설	RTS 리테일링
SEM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SOF 소프트웨어	STL 스틸
TCD 무역 회사 및 유통업체	TEX 텍스타일, 의류 및 명품	THQ 컴퓨터, 주변기기 및 사무용 전자기기
TLS 통신 서비스	TOB 토바코	TRA 교통 및 교통 인프라
TRT 호텔, 리조트 & 크루즈 라인	TSV IT 서비스	

자료: S&P Global ESG Research center 2023

〈표 6〉 Beverages 식음료 산업계 평가지표 및 가중치 예시

지표	배점(100점)
거버넌스 & 경제	**34**
투명성 & 보고	2
기업 지배구조	6
중대성	2
위험 및 위기관리	4
기업 윤리	4
정치적 영향력	2
공급망 관리	6
세금 전략	2
정보보안 및 사이버보안시스템 가능성	2
혁신 관리	4
환경	**31**
환경 정책 및 관리 시스템	4

지표	배점(100점)
배출	2
자원 효율 & 순환	5
폐기물	1
용수	5
기후 전략	5
생물다양성	4
음식물 손실 및 폐기물	2
지속 가능한 농업	3
사회	**35**
노동 관행	4
인권	5
인적자원 개발	4
인재 유치 및 보유	5
산업안전보건	5
건강 및 영양	5
고객 관리(CRM)	3
지속 가능한 마케팅 및 브랜드 인식	4

자료: S&P Global ESG Research center 2023

나.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MSCI는 1999년부터 ESG 평가를 제공해왔으며, 2011년부터 ESG 리서치를 독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MSCI의 ESG 평가는 기업의 ESG 경영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와 기회 창출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투자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린다.

MSCI는 매년 전 세계의 8,500여 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지표는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핵심 ESG 이슈를 선정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MSCI는 모든 지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표 7>에 제시된 37개의 핵심 ESG 이슈 중 기업들

이 속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ESG 이슈를 선별하여 평가하며, 해당 이슈와 관련된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기존 MSCI의 ESG 평가방법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의 같이 기업의 4가지 정보를 기반으로 ESG 평가가 진행된다(전국경제인연합회, 김앤장 2021). ① 평가대상 기업과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ESG 리스크와 기회는 무엇인가, ② 대상 기업이 중요한 리스크와 기회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 ③ 대상 기업이 중요 리스크와 기회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 ④ 동종 산업에 속한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대상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이다.

평가 프로세스는 <그림 3>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에서 주요 ESG 중요이슈 선정 및 비중(Weight)을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학산업에 속한 기업이라고 가정한다면 기업의 주요 비즈니스 활동을 분석하여 <표 7>에 제시된 ESG 평가 이슈 중에 유독성 물질 배출, 탄소 배출 등을 중요이슈로 보는 것이다. 또한 식품 산업에 속한 기업이면 패키징 원자재, 탄소 배출 등을 중요이슈로 보는 것이다. 중요이슈가 정해지고 나면 비중은 중요도에 따라 5~30%가 부여된다. 다만 지배구조(G) 관련 이슈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적용되며, 산업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표 7〉 MSCI ESG 평가지표

영역	주제	ESG 주요 이슈
환경	기후변화	탄소 배출
		탄소 발자국
		자금조달의 환경영향
		기후변화 취약성
	천연자원	물 부족
		원자재 조달
		생물다양성
	오염 & 낭비	유독성 물질 배출
		전력 낭비
		패키징 원자재

영역	주제	ESG 주요 이슈
환경	친환경 기회	클린테크 기회
		신재생에너지 기회
		그린빌딩 기회
사회	인적자본	노무관리
		인적자본 개발
		건강&안전
		공급망 노동자 표준
	제품 책임	제품 안전성 & 품질
		개인정보 & 데이터 보안성
		화학제품 안전성
		책임투자
		금융상품 안전성
		건강 & 인구구조 위험
	주주 반대	논쟁의 원천
	사회적 기회	커뮤니케이션 접근성
		헬스케어 접근
		금융에 대한 접근성
		영양 및 건강 기회
거버넌스	기업 지배구조	이사회
		오너십
		지불
		회계

영역	주제	ESG 주요 이슈
거버넌스	기업 행태	기업윤리
		부정부패 & 불안전성
		비경쟁 요소
		금융시스템 불안정
		세금 투명성

자료: MSCI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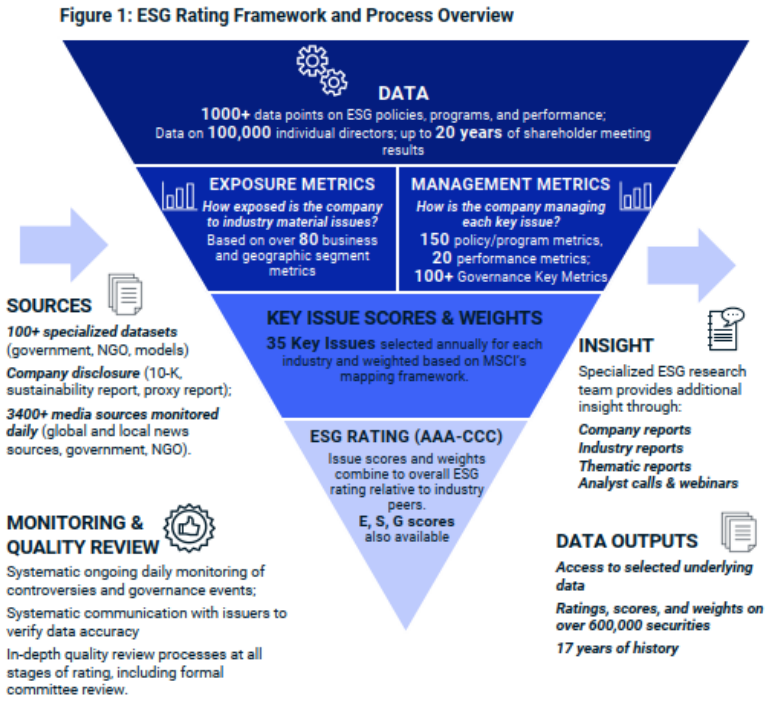
둘째, 앞선 평가에서 기업의 산업 분야에서 도출된 ESG 이슈의 비중이 설정되고 나면, 기업이 중요 ESG 이슈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에 관한 'ESG 리스크 노출(Exposure)'과 기업이 주요 ESG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에 관한 '리스크 관리(Management)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 기업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어떠한 경영 전략을 사용해 왔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리스크 노출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ESG 이슈에 노출된 정도의 다양성을 확인한다. 기업 서비스의 결과물이나 위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위험 노출(Risk exposure) 수준을 0~10점 범위에서 평가하는데 0점은 위험 노출이 없는 경우이고 10점은 매우 높은 경우를 나타낸다. 리스크 관리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업은 확인된 위험을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리스크 관리 수준은 0~10점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0점은 리스크 관리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고 10점은 상당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다. 다만 리스크 관리체계 평가 부문에서 최근 3년 이내에 ESG 관련 논란(Controversies)이 발생한 경우 감점 요소가 된다.

최종 점수 등급으로는 AAA 또는 AA 등급을 "Leader"로, A, BBB, BB 등급을 "Average"로 분류하고, B 또는 CCC 등급은 "Laggard"로 분류된다.

ESG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리스크 노출 수준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높은 위험에 노출된 기업은 여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이 직면한 위험 노출 수준에 대한 평가(Risk Exposure)와 리스크 관리 평가(Risk Management)는 상관성을 가지는데 높은 위험에 노출된 회사의 경우, 다른 회사와 동일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 김앤장 2021).

〈그림 3〉 ESG 평가 프로세스



자료: MSCI, 2022

다. GRI Standards(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GRI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정보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비영리 기구로, 1997년 미국의 환경단체 세레스(Coalition for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 CERES)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등이 주축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GRI의 핵심은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이며, 지난 20여 년간 지속해서 개발되었다. GRI 표준은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글로벌 모범사례를 반영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조직이 이해관계자와 규제기관의 새로운 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으며,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한다.

2000년 발표된 GRI Guidelines(G1)는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최초의 글로벌 프레임워크다. 이후 가이드라인은 GRI Guidelines(G2~G4)로 업데이트되며 확대 및 개선되었다. 2016년, GRI는

GRI Standards를 제시했으며, 산업별 지표는 지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다. GRI Standards는 경제 분야 7개 주제, 환경 분야 8개 주제, 사회 분야 18개 주제 등 세분화된 주제별 지표를 제시한다.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ESG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GRI Standards 지표를 준수하여 작성하고 있다. <표 8>의 경우 GRI 2 조직 프로필 및 보고서 관행과 GRI 3 중대 토픽 공시는 필수 공시로 요구된다. 이외의 GRI 200(경제), GRI 300(환경), GRI 400(사회)으로 구분되어 공시 정보 표준을 <표 9>에 제시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생략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조직에서 정보를 공시할 때 GRI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 추가정보를 별도 공시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GRI에서 제시한 항목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 8> GRI 공통주제 Universal Standards(General Disclosures)

Topic	세부 표준
GRI 2 조직 프로필 및 보고서 관행	2-1 조직 명칭
	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된 조직 목록
	2-3 보고 기간, 주기, 연락처
	2-4 기존 정보 수정
	2-5 외부 검증
GRI 2 기업활동 및 임직원	2-6 기업 활동, 가치사슬 및 기타 사업 관계
	2-7 임직원
	2-8 비정규직 근로자
GRI 2 지배구조	2-9 지배구조 및 구성
	2-10 최고의사결정기구 의장
	2-11 최고의사결정기구 의장
	2-12 영향력(Impact) 관리를 감독하는 부문에 있어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2-13 영향력(Impact) 관리를 위한 책임 위임
	2-14 지속가능성보고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2-15 이해관계 상충
	2-16 중요 사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Topic	세부 표준
GRI 2 지배구조	2-17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집단지식
	2-18 최고의사결정기구 성과 평가
	2-19 보수 정책
	2-20 보수 산정 프로세스
	2-21 연간 총 보상 비율
GRI 2 전략, 정책, 관행	2-22 지속가능 개발 전략에 관한 성명서
	2-23 정책 이행 약속
	2-24 정책 약속 내재화
	2-25 부정적 영향 저감 프로세스
	2-26 고충 제기 및 자문 요청 메커니즘
	2-27 법률 및 규정 준수
	2-28 가입 협회
GRI 2 이해관계자 참여	2-29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2-30 단체 협약
GRI 3 중대 토픽 공시	3-1 중대 토픽 결정 프로세스
	3-2 중대 토픽 리스트
	3-3 중대 토픽 관리

자료: GRI INDEX 참고

〈표 9〉 GRI 특정주제표준 Topic-specific Standards

표준	Topic	세부 지표
경제	GRI 201: 경제성과	직접적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및 기타 리스크와 기회 등
	GRI 202: 시장지위	사업장 소재 지역의 최저 임금 대비 초임 임금의 비율 (성별에 따라 파악),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사회에서 고용된 고위 임원의 비율
	GRI 203: 간접 경제적 영향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서비스 지원, 지역 공급업체에 지출하는 비용의 비중
	GRI 204: 조달관행	지역 공급업체에 지출하는 비용의 비중
	GRI 205: 반부패	사업장 부패 리스크 평가, 반부패 정책과 절차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확인된 부패 사례 및 조치
	GRI 206: 경쟁저해행위	경쟁저해 및 독과점금지 위반 관련 소송
	GRI 207: 세금	조세 접근법, 조세 구조, 통제 및 위험 관리 등
환경	GRI 301: 원재료	사용된 원재료의 중량 또는 용량, 재활용 투입 원재료 비율 등
	GRI 302: 에너지	조직 내 에너지 소비, 조직 외부에서의 에너지 소비, 에너지 집약도, 에너지 소비 감축,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GRI 303: 용수	공유 자원으로서의 물과의 상호작용, 물 방류 관련 영향 관리, 취수, 방류, 물 소비
	GRI 304: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 내 또는 그 인근에서 소유/임대/운영되는 사업장,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
환경	GRI 305: 배출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2),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온실가스 배출 집적도,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량 등
	GRI 306: 폐기물	폐기물 발생 및 심각한 폐기물 관련 영향, 중요한 폐기물 관련 영향 관리, 폐기물 발생, 폐기에서 전환된 폐기물, 직접 처리된 폐기물
	GRI 308: 공급업체 환경평가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308-2 공급망의 부정적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표준	Topic	세부 지표
사회	GRI 401: 고용	신규채용 및 이직,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 육아휴직
	GRI 402: 노사관계	운영상의 변화와 관련한 최소 공지기간
	GRI 403: 산업 보건 및 안전	직장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 위험요인 파악, 리스크 평가, 사고 조사, 직장 의료 서비스, 직장 건강 및 안전 관련 커뮤니케이션, 자문 및 근로자 참여 등
	GRI 404: 훈련 및 교육	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직원 역량강화 및 이직지원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성과 및 경력 개발 검토를 받는 직원 비율
	GRI 405: 다양성 및 기회균등	지배구조 기구와 직원의 다양성,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 및 보수 비율
	GRI 406: 차별금지	차별 사례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GRI 407: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집회결사 및 단체교섭권 훼손 위험이 있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GRI 408: 아동노동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공급업체
	GRI 409: 강제노동	강제 노역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공급업체
	GRI 410: 보안관행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받은 보안 담당자
	GRI 411: 원주민 권리	원주민 권리 침해 사례
	GRI 413: 지역사회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 운영 사업장, 지역사회에 중대한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GRI 414: 공급업체 사회 영향 평가	사회적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공급망 내 부정적 사회적 영향 및 그에 대한 대응조치
	GRI 415: 공공정책	정치 기부금
사회	GRI 416: 고객 보건 및 안전	제품/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 영향 평가, 제품/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 영향 관련 위반
	GRI 417: 마케팅 및 라벨링	제품/서비스 관련 정보 및 라벨링 요건,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 관련 위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 위반
	GRI 418: 고객개인정보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관련해 입증된 민원

자료: GRI INDEX 참고

라. ESRS(European Sustainable Reporting Standards)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EU 그린딜이 2019년 12월에 마련됨에 따라, 유럽연합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보고가 재무보고 만큼 중요해졌다는 판단으로 2021년 4월 비재무 보고지침(NFRD)[16]을 대신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인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17]를 입안하였다.

ESRS를 뼈대로 하는 CSRD는 상장 여부 관계없이 EU에서 활동하는 모든 대기업과 상장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요건을 공개해야 하는 기업은 약 5만 개 이상일 것으로 예측된다. 2024년 초부터는 5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250인 이상 또는 4,000만 유로의 매출을 올린 기업, 2026년에는 중소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김환이 2022).

ESRS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발표한 ESG 기준으로 CSRD 이행을 위한 관리 도구이다. 즉, CSRD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를 위한 법률이라면, ESRS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공시할 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시한다. ESRS는 기존의 이니셔티브는 물론 TCFD, ISSB, GRI와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졌고 각기 다른 공시규범들의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공개해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공시의무 추세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사용자들이 기업의 ESG 차원에서 직면하는 중대한 리스크와 기회 요인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받아 기업의 가치 창출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SRS는 ESG 전반에 걸쳐 상당히 넓은 범위를 아우른다. <표 9>의 ESRS 평가지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ESRS의 일반원칙은 2가지로, ESRS1(일반원칙), ESRS2(일반, 전략, 거버넌스 및 중요성 평가 공시 요구사항)가 이에 해당한다. 환경 기준은 5가지로, ESRS E1(기후변화), ESRS E2(오염), ESRS E3(수자원과 해양자원), ESRS E4(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ESRS E5(자원사용 및 순환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기준은 ESRS S1(임직원), ESRS S2(공급망 내 근로자), ESRS S3(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ESRS S4(소비자 및 최종사용자)로 구성되어 있다. 지배구조는 ESRS G1(비즈니스 행동규범) 1가지다.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FRAG)의 일반원칙에

16) 유럽연합은 2017년부터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업의 비재무 정보공개 의무화 지침인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를 모든 EU 회원국에서 시행함. 직원 500명 이상 대규모 상장기업,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은 NFRD에 따라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공시

17) 환경, 사회, 거버넌스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프레임워크로 기존의 NFRD보다 비재무 정보의 비교 가능성 신뢰성 연관성을 고도화하여 보고 내용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따르면, 새로운 보고 기준을 준수하는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영향에 대한 위험과 기회에 대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새로운 초안에는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표준화된 분야에 구애받지 않는 공시, 특정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공시, 그리고 기업 특정 수준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 등이 포함된다. 특히, 새로운 기준에는 이중중대성 개념의 사용과 가치사슬 지속가능성 요인의 고려가 포함된다. 이중중대성 개념은 GRI를 포함한 EU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에서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지속가능성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이해관계자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접점의 영향을 강조하였지만, 비재무적 측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과 기업이 사회, 환경에 미치는 비재무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업 경영 전략의 비즈니스 성과 개선을 기대하고자 한다.

〈표 10〉 ESRS 평가지표

표준	주제	세부지표
공통 표준	ESRS 1: 일반 필수공시 사항	ESRS 보고 표준 관련, 이중중대성 평가, 지속가능성 실사, 시간 범위
	ESRS 2: 일반 공시사항	일반공시, 특정 상황과 관련된 공시, 지배구조, 전략,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목표 및 수행
환경	ESRS E1: 기후변화	기후변화 대응방안, 기후변화 저감방안, 에너지
	ESRS E2: 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식량자원의 오염, 위험성물질, 고위험성물질
환경	ESRS E3: 수자원과 해양자원	용수 배출량, 용수 소비량, 용수 사용량, 수역과 해양의 물 배출량, 서식지 파괴 및 해양자원 관리에 대한 강도
	ESRS E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접적인 영향요인, 생물 종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의 범위와 상태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 토양사용 변화, 오염 및 기타 주제
	ESRS E5: 자원 사용 및 순환경제	자원사용을 포함한 자원 유입 현황,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자원유출, 폐기물

표준	주제	세부지표
사회	ESRS S1: 임직원	근무조건, ,동등한 대우 및 기회 제공, 기타 업무 관련 권리, 안전한 고용,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등
	ESRS S2: 공급망 내 근로자	근무조건, 동등한 대우 및 기회 제공, 기타 업무 관련 권리, 양성평등 및 동일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다양성 등
	ESRS S3: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지역사회의 시민·정치적 권리, 지역사회만의 특별한 권리, 적절한 보금자리, 물과 위생, 표현의 자유 등
	ESRS S4: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개인정보 관련 영향도, 개별 안전, 사회적 포용성, 개인정보보호, (품질) 정보에 대한 액세스, 아동 및 타인 보호
지배구조	ESRS G1: 비즈니스 행동규범	기업문화,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내부고발자 보호, 정치 참여 및 로비 활동, 동물 복지, 교육을 포함한 예방 및 트레이닝, 사고

자료: EFRAG 2022

마. World Bank

세계은행그룹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개발기구 중 하나로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자금 지원·정책 자문·연구·분석을 제공한다. 세계은행그룹은 두 가지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절대 빈곤 종식: 세계 인구의 3%를 차지하는 극 빈곤층 인구 감소이며 두 번째는 공동 번영 증진: 각국 소득 하위 40% 계층의 소득 증대이다. 세계은행그룹은 다섯 개의 기구가 하나로 이루어진 구조인데 국제부흥개발은행[18](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개발협회[19](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금융공사[20](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투자보증기구[21](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22](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은행에서는 주요 ESG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지표를 통해 국가의 ESG 현황을 점검하고 점수를 부여한다. 또한 데이터를 국가 단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8) 중·저소득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 지원을 위한 자문 역할 수행
19) 최빈 개발국을 대상으로 양허성 자금(interest-free loans and grants) 지원
20) 개발도상국의 민간 부문 발전을 위한 투자 자문 및 자원 운용
21)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 비상업적 위험 보증 제공
22) 조정 및 중재를 통한 국제 민간 투자 촉진

세계은행의 ESG 지표는 환경부문 5가지 분류, 3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부문 6가지 분류, 2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지배구조부문 6가지 분류, 1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은행의 ESG 분류는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지표를 몇 가지 살펴보면 환경부문의 식량 안보에서는 '농경지(%)', '산림면적(%)' 등을 지표로 하고 있다. 사회부문의 교육 및 기술에서는 '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 '지출총계(정부 지출의 %)', '학교 등록률', '초등학교 입학률(%)' 등을 지표로 하고 있다. 지배구조의 경제환경에서는 'GDP 성장률', '인터넷 사용률(인구의 %)' 등을 지표로 하고 있다.

〈표 11〉 World Bank ESG Framework

환경	사회	지배구조
배출 및 오염	서비스 접근성	경제환경
에너지사용 및 보안	인구통계학	성별
기후 위험 및 복원력	교육 및 기술	정부 효과
식량 안보	고용	인권
자연 자본 기부 및 관리	건강과 영양	혁신
-	빈곤과 불평등	안정성과 법치주의

자료: Sovereign ESG Data Portal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세계은행의 ESG 지표는 앞서 살펴본 평가체계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관이나 기업의 ESG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현황을 ESG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개발협력기관의 경우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단위의 ESG 현황 변화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세계은행의 ESG 지표를 기관의 사업 운영 관점으로 ESG 평가와 연계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국내 ESG 평가체계

앞서 살펴본 해외 ESG 평가체계 변화 흐름에 따라 한국의 ESG 평가체계도 지속해서 발전해오고 있다. 한국은 ESG와 관련된 공시 의무화와 이해관계자의 ESG 경영 공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평가와 지수를 산출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겨났다(이인형 2021). 공공 부문은 공공기관의 ESG 공시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에 'ESG 경영 현황' 항목 등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ESG 경영 추진과 평가 대응의 어려움을 낮추기 위해 2021년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정부 및 공공, 민간 모두 ESG 평가 가이드라인 및 평가지표의 개발과 적용에 다양한 움직임을 보인다.

국내에서 주요 알려진 ESG 평가기관은 한국ESG기준원(KCGS), 서스틴베스트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해외 ESG 평가와 한국의 ESG 평가를 비교하면 차이점이 있다. 해외 ESG 평가기관들은 ESG 평가방법론을 외부에 넓은 범위로 공개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ESG 평가지표와 같은 방법론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는 정보공개 수준이 낮다(장윤제 2021;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2023). 또한 국내외 ESG 평가시장에서 평가방법론의 투명성 부족, 이해상충 우려 등은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2023). 따라서 본 장에서는 대표적인 한국의 ESG 평가지표 한국ESG기준원, 서스틴베스트와 가이드라인인 K-ESG로 살펴보고자 하며, 각 기관에서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정도 수준에서 평가체계를 참고하였다.

가. 한국ESG기준원(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KCGS)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23]은 국내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 중 2002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기관으로, 2003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평가를 시작하여 2011년에는 ESG 평가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매년 전년도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 약 700여 개사, 코스닥 시장(KOSDAQ) 상장기업 약 200여 개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기업은 KCGS에서 받은 평가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ESG 경영 수준을 인지할 수 있게 한다. ESG 경영 평가구조는 2022년 연말 기준으로 ESG 평가의 적시성과 예측성,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가 개편되었다(한국ESG기준원 2023). 이로 인해 기업들의 평가 등급 결과가 달라지기도 했으며, 실제 B+ 이상 기업의 비율이 36.9%(2021년)에서 27.1%(2022년)로 감소하는 등 하향 조정된 기업의 사례가 많았다(심기문 2023).

평가 프로세스는 제출 가이드 배포 → 평가 수행 → 등급부여 → 결과분석 및 등급 조정으로 이루

23) 2022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 한국ESG기준원(KCGS)으로 사명 변경됨

어진다. 특히, 환경, 사회 영역 평가에서 '선 제출 → 후 평가'방식이 도입되었다. 평가 단계에서 기업이 피드백을 통해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자료로 평가되며, 이때 기업과 평가 전·후 소통을 활발히 하게 된다. 평가 후 점수 산출 단계에서 ESG 영역별 점수와 ESG 전체점수를 표준화하여 100점 환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Matrix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이때 ESG와 논란이 되는 사항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영역별 점수에서 차감된다.

〈표 12〉 ESG 평가 프로세스

제출 가이드 배포	→	평가 수행	→	등급부여	→	결과분석 및 등급 조정
• 평가기업 선정 • 제출 가이드 배포 • 기초데이터 수집		• 기본평가(수집된 기초데이터 검증) • 심화평가(이슈 중 대성 평가)		• 우수기업 인터뷰 • 정확한 평가를 통해 데이터 검증 • 등급부여		• 기본·요약보고서 발간 • ESG 쟁점 발생 시 등급 조정

자료: 한국ESG기준원

<표 13>의 ESG 평가항목은 KCGS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문항을 분류해본 것이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 3개의 영역에서 24개의 대분류와 323개 핵심 평가문항[24]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평가 문항은 평가대상 기업만 확인할 수 있다. 핵심평가 항목에 기업 경영활동의 부정적 이슈를 확인하기 위해 공시자료, 미디어 등의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법 위반 여부, 기강, 규모, 중대성 등을 종합하여 감점 수준을 결정하는 58개의 심화평가 항목이 포함된다. 환경은 환경경영을 위한 추진체계, 방침, 전략과 용수, 폐기물,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 및 정량적 데이터 관리, 조직의 환경경영 외부 공개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는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별 경영활동에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배구조는 일반 기업은 4대 대분류로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리더십, 감사, 이해관계자 소통으로 조직의 조직체계 현황 공개로 구성된다.

24) 평가 문항은 비공개 자료로 평가대상 기업에 따라 맞춤형 평가 문항으로 구성됨. 본 연구에서는 기본사항의 만 제시함

〈표 13〉 KCGS ESG 평가항목

구분		평가문항
환경	환경경영	환경조직, 목표 및 계획수립, 친환경공급망 관리 등
	환경성과	수자원/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환경위험관리,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등
	이해관계자 대응	환경보고, 이해관계자 대응활동 등
사회	근로자	고용 및 근로조건, 노사관계 등
	협력사 및 경쟁사	공정거래, 부패방지, 사회적 책임 촉진 등
	소비자	소비자 안전 및 보건,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등
	지역사회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공헌, 지역경제 발전 등
지배구조	주주권리 보호	주주권리 보호 및 행사 편의성, 소유구조 등
	이사회 리더십	이사회 운영 및 구성, 임원(최고경영자 제외)의 선임
	감사	감사기구 구성, 감사기구 운영
	이해관계자 소통	공시 일반, 연차보고서 공시 등

자료: 한국ESG기준원

나. 서스틴베스트(Sustinvest)

서스틴베스트는 ESG 평가, ESG 데이터 분석과 리서치, ESG 투자 운용 전략 자문, 기업 지속가능성 진단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평가기관이다. ESG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스틴베스트는 2007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유평가 모델인 ESGValue^{TM}를 통해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와 ESG 리스크 관리의 영향에 대해 입체적으로 접근하였다[25]. 즉,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 총 1,043개 사, 비상장사 총 186개 사를 대상으로 ESG 평가가 이루어졌다(서스틴베스트 2021). 기업은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결과를 기관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사의 ESG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평가체계인 ESGValueTM는 기업의 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으로 환경(E), 사회(S), 지배

25) 서스틴베스트의 평가 기준 및 방법은 서스틴베스트 기업 ESG 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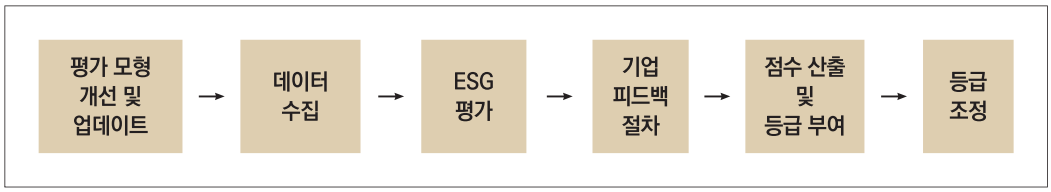
구조(G) 아래 평가지표(KPI)와 세부지표(Data Point)[26]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체계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서스틴베스트 2021)[27]. 첫 번째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 산업과 자산 규모에 따라 ESG 경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가중치는 ESG 이슈에 대한 산업별 리스크 노출 수준, 핵심 ESG 이슈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자산 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를 고려한 지표 간 상대적 중요성(Materiality)을 근거로 결정된다. 이를 고려하여 IT, 금융, 조선, 제조업 등 21개의 섹터의 가중치가 조정된다. 서스틴베스트가 공개하고 있는 섹터별 ESG 가중치는 매년 변동되지만, 공개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지배구조(40~55%)와 사회 영역(35~40%)의 가중치가 환경 영역(5~25%)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서스틴베스트가 환경 영역의 공시하는 데이터 부족으로 가중치가 비교적 낮게 산정되었지만, 앞으로는 환경에 관한 공시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평가 환경 가중치 또한 조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일반 지주회사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이다. 자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일반 지주회사의 경우 주요 자회사 ESG 경영 관리 역량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세 번째는 컨트로버시(Controversy) 방법론의 적용이다. 논란이 되는 ESG 이슈에 대해서는 기업이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더라도 그 ESG 이슈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심각성과 재발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슈의 심각성과 빈도가 높다면 해당 기업의 ESG 리스크 경영 관리가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대규모 기업집단 리스크 평가이며, 주주가치 훼손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이 또한 지표 평가의 보완책 및 서스틴베스트 평가모형의 강화책에 해당하며, 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배구조 평가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특정 자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의 행위로 인해 주주가치를 낮추는 정도의 심각성이 높은 기업이면 지배구조(G) 리스크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단계는 <표 14>의 6단계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며, 매년 1~3월에 평가모형을 개선하고 4~5월에는 지배구조 데이터, 7~8월에는 기업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바탕으로 환경, 사회 데이터를 수집한다. ESG 평가는 연 2회 걸쳐 평가한 뒤 기업에 특정 사항에 대해 피드백 요청을 한다. 이후 규모별 등급과 전체 등급으로 부여한 뒤 ESG 영역별 성과 미흡 기업, 재무 이슈 발생 기업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게 된다. 즉, 지배구조와 사회 영역은 매우 우수한 기업이지만 환경 영역은 미흡할 경우 지속가능성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등급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

26) 평가지표(KPI)를 평가할 수 있는 세부지표로 예를 들면 친환경 혁신 역량(KPI)에 친환경 연구개발 활동, 친환경 연구개발 목표 등이 있을 수 있음

27) 환경(E) 영역은 총 4개의 Category, 7개의 KPI, 21개의 Data Point로, 사회(S) 영역은 총 4개의 Category, 13개의 KPI, 34개의 Data Point로, 지배구조(G) 영역은 총 6개의 Category, 18개의 KPI, 41개의 Data Point로 구성(서스틴베스트 2021) 〈표 14〉에는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인 평가지표(KPI)까지만 제시함

〈표 14〉 서스틴베스트 평가 프로세스



자료: 서스틴베스트

서스틴베스트의 평가항목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환경 영역은 조직의 친환경 활동을 중점으로, 생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폐기물 등의 정량적 목표와 성과, 활동으로 구성된다. 또한 고객관리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측정하는 그린마케팅 활동도 포함한다. 사회 영역에서는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별 관련된 경영활동과 성과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배구조 영역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과 이사들의 법 위반 여부와 이사회 개최, 불참 수와 관계사 부당거래, 매출액 등 정량적 데이터 요구로 구성된다. 또한 ESG 경영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표 15〉 서스틴베스트 평가항목

영역 구분	평가항목(Category)	평가지표(KPI)
환경	혁신활동	친환경 혁신역량, 환경성 개선성과
	생산공정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 공정관리, 온실가스
	공급망 관리	친환경 공급망 관리
	고객 관리	그린 마케팅
사회	인적자원 관리	근로조건, 고용평등 및 다양성, 노사관계 관리,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공급망 관리	공정거래, 상생협력, 공급사슬관리
	고객 관리	고객정보보호, 품질관리, 소비자 만족 경영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및 활동,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 관계

영역 구분	평가항목(Category)	평가지표(KPI)
지배구조	주주의 권리	경영권 보호장치, 주주총회, 주주가치 환원
	정보의 투명성	공정공시, 공시위반, 회계 투명성
	이사회의 구성과 활동	이사의 선임,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활동, 감사 및 감사위원회
지배구조	이사의 보수	이사 보수의 적정성, 보상위원회
	관계사 위험	관계사 우발채무, 관계사 거래, 내부거래 위반
	지속가능경영 인프라	지속가능경영 지배구조, 지속가능경영 보고, 윤리경영

자료: 서스틴베스트

다. K-ESG 가이드라인

실제 기업에서는 정보 부족, 담당자 부재 등으로 ESG 경영 도입 및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기업이 스스로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ESG 평가 대응 역량 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진단항목은 글로벌 DJSI, MSCI, EcoVadis 등 총 13개의 ESG 평가 체계와 가이드라인 등이 참고되었으며, 국내 산업환경을 고려하여 기업(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산업 전반에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K-ESG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ESG 경영성과 수준의 비교 기준으로 적용되거나 의사결정 신뢰성 확보의 근거로 활용된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은 ESG 경영 현황 및 수준을 자가 진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ESG 경영 전략 또는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 투자기관은 자체 ESG 평가체계 구축에 활용하거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ESG 평가 및 검증기관은 평가지표 개선 또는 신규 개발에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은 공급망 ESG 평가 대응체계를 구축하거나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진단하는 데 활용한다. 앞으로 정부에서 1~2년 주기로 K-ESG의 개정판을 발간하여 기업 규모 및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21).

진단항목은 <표 16>에 나타난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4개의 영역 아래 27개 중분류(범주), 61개의 핵심지표(진단항목)로 구성된다. 항목별로 3단계 또는 5단계로 0점~100점까지 점수가 차등 부여될 수 있다. 정보공시는 조직의 ESG 정보를 정보 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공개 여부에 대한 진단항목으로 구성된다. 환경은 조직이 환경경영을 수행하는데 명확한 방향성 설정부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 체계 외의 원부자재, 에너지, 온실가스, 에너지 등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항목으로 주로 구성된다. 환경 데이터를 공개할 때 기준을 5년 치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추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데 특징이 있다. 사회는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조직의 경영활동을 공개할 수 있는 진단항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데이터를 5년 산업재해율 추이 공개를 권장하며 안전에 대한 중요이슈를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협력사 ESG 경영 항목과 여성의 관리자 수 항목은 최근 중요해진 공급망의 ESG 관리와 구성원의 다양성을 반영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지배구조는 조직의 중요한 사항을 논의 및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구, 감사기구 등과 조직의 공정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진단항목으로 구성된다. 조직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장을 대표이사와 분리하여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사회 개최 건수 등 활동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기본 진단항목 이외에도 산림 탄소흡수량, 에너지 효율, 공급망 안정,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 등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추가 진단항목이 있다. 추가 진단항목은 기본 진단항목으로 현황 진단이 어려울 경우 대체하여 사용된다.[28)]

K-ESG 가이드라인은 ESG 평가 목적이 아닌 안내 차원으로 제시된 것으로 기존의 기업평가나 ESG 평가 등에 접목하거나 조직의 현황을 진단하는데 자가 점검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공기관에서도 K-ESG 가이드라인의 지표들이 일부 경영평가 항목과 연결되어 있기에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현황을 자가진단해볼 수 있다.[29)]

반면 가이드라인의 한계점도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이 기존의 국내외 ESG 관련 가이드라인 및 평가지표를 나열한 수준이고, 모든 산업에서 적용 가능한 범용으로 만들어져 업종/규모/산업별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는 지배구조 분야의 주주권리(주주총회 소집 공고, 배당 정책 및 이행 등) 항목은 적용에 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진단항목의 해설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데이터 산정 방식 불명확하여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이준서 외 2022). 예를 들면 '사업장 영향력 및 통제력을 행사하는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로 구분되는데 어디까지의 범위인지,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사회와 관련된 법률이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없다. 데이터 산정 방식의 경우 총량 종 해당량의 비율을 제시하는데 폐기물 같은 경우 총량을 어디까지 반영해야 하는지, 산업 평균을 활용하도록 하는 항목은 산업 평균값을 확인할 수 없다.[30)]

따라서 K-ESG 가이드라인은 중견, 중소기업과 같은 규모에 따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활용성에 대해서도 고민하여 추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해 공공기관에서의 활용을 높이려면 공공기

28) K-ESG 가이드라인의 활용과 진단항목 구성은 관계부처 합동의 'K-ESG 가이드라인 v1.0'을 참고함
29) K-ESG 가이드라인의'신규채용 및 고용 유지', '복리후생' 등의 지표 등이 경영평가 '신규채용현황', '복리후생' 등과 연결
30) 이준서, K-ESG 가이드라인을 통한 E.S.G. 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를 참고함

관의 특성을 반영한 개정이 진행되어 K-ESG 가이드라인의 공신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6〉 K-ESG 가이드라인 지표

대분류	중분류	핵심지표
정보공시	정보공시 형식	ESG 정보공시 방식, ESG 정보공시 주기, ESG 정보공시 범위
	정보공시 내용	ESG 핵심이슈 및 KPI
	정보공시 검증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원부자재	원부자재 사용량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에너지 사용량
	용수	용수 사용량
	폐기물	폐기물 배출량
	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 배출량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라벨링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사회	노동	정규직 비율, 자발적 이직률,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결사의 자유 보장
	다양성 및 양성평등	여성 구성원 비율,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인 고용률)
	산업안전	안전보건 추진 체계, 산업재해율
	인권	인권 정책 수립, 인권 리스크 평가
	동반성장	협력사 ESG 경영, 협력사 ESG 지원, 협력사 ESG 협약사항
	지역사회	전략적 사회공헌, 구성원 봉사참여
	정보보호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 법/규제 위반	사회 법/규제 위반

대분류	중분류	핵심지표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 내 ESG 안전 상정, 전체 이사 출석률
	이사회 활동	이사회 안건 처리
	주주권리	주주총회 소집 공고
	윤리경영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감사기구	내부감사부서 설치, 감사기구 전문성(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자료: K-ESG 가이드라인

Ⅲ. 평가지표 체계 비교분석

국내외 평가체계를 비교해보면 해외 ESG 평가의 경우 글로벌 기업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ESG 평가보다 글로벌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하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또한 해외의 ESG 평가기관들은 평가지표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국내의 ESG 평가기관들은 평가지표에 대해서 공개를 잘 하지 않는 폐쇄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장윤제 2021). 즉, 국내 ESG 평가기관들이 가중치 정보, ESG 평가정보 공개가 미흡하여 이해관계 상충, 신뢰성, 기준의 객관성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연구에서 검토한 국내외 평가지표 및 정보공개 지표는 DJSI, MSCI, GRI Standards, ESRS, World Bank, KCGS, Sustinvest, K-ESG이며 경제 및 지배구조, 환경, 사회로 지표를 구분하였다. 모든 평가지표 및 정보공개 지표를 종합하여 빈도수를 반영한 ESG 경영지표를 도출하였고, 이후 국내외 평가체계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국내외 ESG 공통지표와 특성지표를 구분하였다.

기업(기관)의 ESG 경영을 위한 관리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평가체계의 지표들을 종합하여 총 128개의 진단항목을 기반으로 ESG 지표를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경제 및 지배구조 지표는 6개 분류의 총 35개 진단항목으로, 환경 지표는 12개 분류의 총 51개 진단항목으로, 사회 지표는 8개 분류의 총 43개 진단항목으로 정리하였다[31]. 정리한 종합지표는 각 평가체계에서 지표에 해당하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빈도수를 확인하여, 총 8개의 평가체계 중 4개 이상의 평가체계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1차 선별하였다. 1차 스크리닝을 통해 도출된 지표는 경제 및 지배구조 6개 분류의 총 19개 진단항목, 환경 8개 분류의 20개 진단항목, 사회 6개 분류의 총 14개 진단항목으로 정리하였다. 본 종합지표를 통해 기업(기관)의 ESG 경영을 운영하는 관점에서의 관리지표를 확인해 보았다.

국내외 평가체계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종합 ESG 지표에서 해외 평가체계 5종, 국내 평가체계 3종을 각각 종합하여, 앞서 관리지표를 도출하는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표의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외평가체계는 총 53개의 진단항목, 국내평가체계는 총 36개의 진단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① 국내외 ESG 공통지표, ② 해외 ESG 특성지표, ③ 국내 ESG 특성지표 이상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1) 경제 및 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반부패/윤리경영, 고객만족, 공급망관리, 주주권리보호), 환경(환경 일반, 원재료, 에너지, 용수,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폐수, 유해물질 관리, 생물다양성, 기후전략, 수자원 리스크관리), 사회(근로자권리, 노동인권,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관리, 복리후생 및 조직문화, 사회공헌, 산업안전보건, 지역사회 영향)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외 ESG 경영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표의 특징과 해외 및 국내 ESG 특성지표의 특징을 분석하여 개발협력기관의 ESG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하였다. 또한 ESG 경영의 실효성 있는 추진 측면에서 단계별 도입해야 하는 지표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 국내외 ESG 공통지표

국내외 평가지표 및 정보공개지표에서 공통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지표는 11개의 분류, 총 20개의 진단항목(경제 및 지배구조 7개, 환경 8개, 사회 5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평가지표 및 정보공개지표에서 이사회 구조, 리스크 대응, 에너지사용,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임직원 다양성은 빈도수 6으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 정보공개 요구가 높은 진단항목임을 알 수 있었다.

분류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와 온실가스에 대한 진단항목은 다른 지표 대비 세분화되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사회와 관련된 항목은 민간기업의 특성이 강하여 개발협력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온실가스에 대한 진단항목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Scope 2)의 측정과 감축 활동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민간 및 공공기관들의 다양한 선진 사례들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7〉 국내외 ESG 공통지표

Category	Index	Requirements
	Index Title	진단항목
경제 및 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구조
		이사회 임명 과정
		이사회 운영 효율성
		보수 결정 절차
	리스크 관리	리스크 대응
	반부패/윤리경영	윤리경영 지침 및 적용 범위
	공급망 관리	협력사 ESG 정책

Category	Index	Requirements
	Index Title	진단항목
환경	에너지	에너지 사용
	용수	용수 사용량
		용수 재활용 및 재사용
	온실가스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	질소산화물 배출
		폐기물 발생
사회	근로자 권리	단체협약
		임직원 다양성
	인적자원 개발	임직원 훈련 및 개발
	인적자원 관리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신규채용 및 이직

자료: 저자구성

나. 해외 ESG 특성지표

국내외 평가지표 및 정보공개지표 중 해외 ESG 특성지표는 16개의 분류, 총 33개의 진단항목(경제 및 지배구조 10개, 환경 15개, 사회 8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지표 및 정보공개지표에서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은 빈도수 5로 나타났으며, 부패 위험 평가, 제품 및 서비스군의 안전보건 영향평가, 에너지 소비 절감, 유형과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 교육 프로그램, 노동자 보건, 산업안전보건 관리, 임직원 산업재해 관리는 빈도수 4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 정보공개 요구가 높은 진단항목임을 알 수 있었다.

분류기준으로 반부패/윤리경영, 생물다양성에 대한 진단항목은 다른 지표 대비 세분화되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반부패/윤리경영부터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부패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정립되어 있으므로 해당 항목들을 개발협력기관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부 항목 중 조세 전략이나 부패 위험 평가는 글로벌 기업이 국가별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는 항목으로, 국가별 조세 리스크 대응전략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부패/윤리 관련 이슈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지만, 개발협력기관도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운영 간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리스크나 글로벌 현지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핵심 개념을 차용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생물다양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생물다양성법)이 정립되어 있으므로 개발협력기관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통지표에서 확인했던 온실가스 발생량과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Scope 3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다[32]. 또한 탄소회계금융협회의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와 같이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처럼 개발협력기관도 직접 운영하고 있거나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측정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18〉 해외 ESG 특성지표

Category	Index	Requirements
	Index Title	진단항목
경제 및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	이사회 영향력 및 책임
	반부패/윤리경영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부패 위험 평가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조세 전략
		윤리 제도 및 교육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사회적, 경제적 영역의 법률 및 규제 위반
	고객 만족	제품 및 서비스군의 안전보건 영향 평가

3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SCOPE 3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2023년 내 확정할 예정이고, 유럽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를 통해 2024년부터 공시가 의무화됨

Category	Index	Requirements
	Index Title	진단항목
환경	공급망 관리	공급망 ESG 실사
	에너지	에너지 소비 절감
		에너지 집약도
	용수	공급원별 취수량
	온실가스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대응
	폐기물	유해폐기물 발생
		유형과 처리 방법에 따른 폐기물
	유해물질 관리	중대한 유출
환경	생물 다양성	활동, 제품, 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보호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운영 사이트
		사업 영향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국제자연보존연맹(IUNC)지정 멸종위기 종(Red list)과 국가지정 멸종위기종
	수자원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수자원 리스크 관리 방법
		물 부족 지역에의 노출

Category	Index	Requirements
	Index Title	진단항목
사회	노동 인권	아동 노동
	인적자원 개발	교육 프로그램
		임직원 교육 성과
		임직원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인적자원 관리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 및 보상 비율
	산업안전보건	노동자 보건
		산업안전보건 관리
		임직원 산업재해 관리

자료: 저자구성

다. 국내 ESG 특성지표

국내외 평가지표 및 정보공개지표 중 국내 ESG 특성지표는 9개의 분류, 총 16개의 진단항목(경제 및 지배구조 7개, 환경 6개, 사회 3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지표 및 정보공개지표에서 공급망 지원, 주주권리 행사 편의성, 주주권리 보호 책임성, 경영성과 배분, 환경경영시스템:검증/감사/인증, 제품 및 포장재 재생 원료는 빈도수 3으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 정보공개 요구가 높은 진단항목임을 알 수 있었다.

분류기준으로 주주권리 보호는 다른 지표 대비 세분화되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개발협력기관 및 공공기관의 특성상 주주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고 해당 내용은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이기에 직접적 적용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개발협력기관으로서 사회공헌 전략,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등과 같이 사회공헌 분류의 항목들은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UN SDGs와 연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9〉 국내 ESG 특성지표

Category	Index	Requirements
	Index Title	진단항목
경제 및 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구성원 및 CEO 보수공개
	고객 만족	소비자 만족도
	공급망 관리	공급망 지원
	주주권리 보호	주주권리 행사 편의성
		주주권리 보호 책임성
		경영성과 배분
		내부거래 관리
환경	환경일반/환경정책	환경정책
		환경경영시스템: 검증/감사/인증
	원재료	사용된 원료의 중량과 부피
		제품 및 포장재 재생 원료
	대기오염물질	황산화물 배출
		기타 주요 대기 배출물 배출
사회	노동 인권	인권 정책
	사회공헌	사회공헌 전략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그리고 발전프로그램 운영 비율

자료: 저자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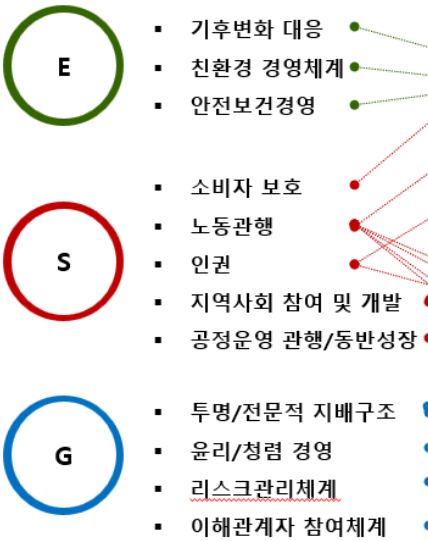
Ⅵ. ESG 경영사례 비교분석

1. 국내 공공기관 ESG 이행 사례

국내 많은 공공기관은 정부의 ESG 경영 관련 정책 확대에 따라 ESG 정보공시를 요구받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세계적인 ESG 경영 동향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통합 공시제도 알리오(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를 통해서 ESG 정보공시를 확대하여 분류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지속해서 ESG 공시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된 정보공시 항목에는 E(환경)에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사용량, S(사회)는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인권경영, 장애인 고용현황, G(지배구조)는 이사회, 청렴도 평가결과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의 국정과제를 반영하는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ESG 중 S(사회) 분야를 반영하고 있는 지표로 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2022 경영평가에서는 기관 전략에 ESG 경영 반영 여부, 친환경·탄소중립 등의 ESG 관련 항목이 반영되어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과 ESG 경영활동의 맵핑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그림 4>에 나타난 것처럼 공공기관들의 경영활동은 이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형태로 ESG 정보를 공시하고 대표적인 이해관계자인 국민에게 알리오를 통해 ESG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ESG 경영사례를 통해 ESG 경영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조사는 공공기관 중 코이카와 유사한 성격(개발협력 사업 추진), ESG 경영의 추진 및 공개 여부를 고려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를 선정하였다. 단, 이번 장에서 제시하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사례를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즉, 대상 기관별 알리오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 ESG 경영 현황과 그와 관련된 ESG 경영사례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의 특성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림 4〉 공공기관 ESG와 경영평가 분석 결과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45)	1. 경영전략	9	8	1
	리더십	2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5	5	
	국민소통	2	1	1
	2. 사회적 책임	12	5.5	6.5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1	2
	안전 및 재난 관리	2	1	1
	친환경·탄소중립	1.5	1	0.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1	2
	윤리경영	2.5	1.5	1
	3. 재무성과관리	13	2	1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 (1)	2 (1)	
	재무예산성과 (일반관리비 관리)	7 (3)		7 (3)
	효율성 관리	4		4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4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2	2	
	노사관계	2	2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7	4	3
	보수 및 복리후생	4	4	
	총인건비관리	3		3
	소 계	45	23.5	21.5
주요사업 (5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55	24	31
	소 계	55	24	31
합 계		100	47.5	52.5
가점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	5	5	

*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경영평가 항목

자료: 저자 구성[33]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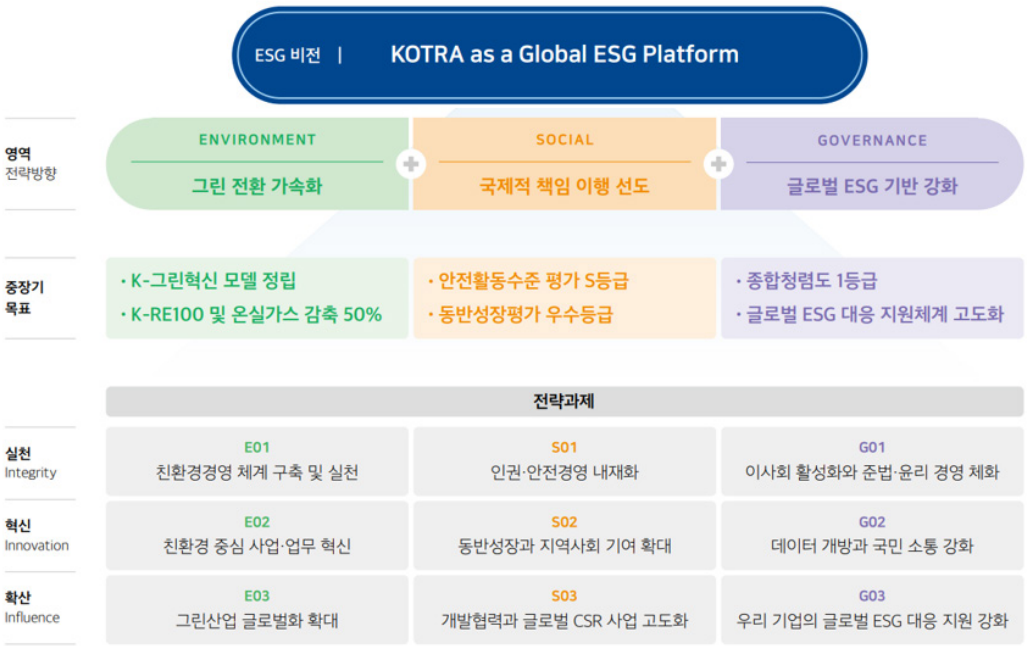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는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라는 미션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 지원, 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준정부 공공기관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뿐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사업 협력국과의 상생발전 및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신흥국 진출을 확대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KOTRA는 수많은 파트너 국가와 기업을 두고 있는 만큼 기관의 본질과 부합하는 활동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ESG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손수득 외 2021). 먼저 ESG 경영 전략 측면에서 'KOTRA as a Global ESG Platform'이라는 미션을 통해 글로벌 ESG 플랫폼의 역할

33)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2022.10)의 평가지표 참고

을 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KOTRA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서 상위 9개 주제 영역 중 그린사업 글로벌화 확대, 개발협력 CSR 사업 고도화, ESG 변화 대응 지원이 플랫폼 역할이라는 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34] 이는 <그림 5>에 나와 있는 KOTRA의 ESG 경영 전략의 전략과제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그린사업 글로벌화 확대, 동반성장과 지역사회 기여 확대, 개발협력 글로벌 CSR 사업 고도화, 우리 기업의 글로벌 ESG 대응 지원 강화가 있다. 즉, 국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기관 본질의 특성상 내부적으로 ESG 경영체계 구축과 동시에 ESG 경영 추진 및 확산의 ESG 플랫폼 역할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 KOTRA ESG 경영 전략



자료: KOTR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KOTRA에 미치는 ESG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식도를 고려한 중대성 평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다음은 KOTRA가 알리오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하고 있는 ESG 공시항목과 ESG 경영활동을 통해 ESG 경영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자 한다. 알리오에 일부 공시항목은 공시하는 시기가 다르므로 일부 미공시 항목도 있다. KOTRA는 알리오를 통해 <표 20>과 같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ESG 분야에서는 <ESG 평가지표 체계 비교 분석> 장에서 제시하는 항목에 부합하는 활동 성과 추이를 공시하고 있다. 또한 공시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확성(Accuracy),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비교가 가능한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명료성(Clarity)을 고려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 20〉 KOTRA의 알리오 ESG 관련 공시항목

중분류	공시항목	공시 내용
ESG 현황		-
E(환경)	온실가스 감축실적	3개년 추이
	에너지 사용량	5개년 추이
	폐기물 발생량	5개년 추이
	용수 사용량	5개년 추이
	환경법규위반	위반사항 없음
	저공해 자동차 현황	3개년 추이(1종~3종)
	녹색제품 구매실적	3개년 추이
S(사회)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안전책임경영보고서, 개인정보보호등급
	사회공헌 활동	봉사활동 실적(5개년), 기부 내역(5개년), 봉사활동 내역
	인권경영	인권경영체계, 인권영향평가결과, 인권 침해 구제절차, 인권경영 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남성,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5개년), 출산휴가 사용자 수(5개년), 단축 근무제 사용자 수(5개년), 유연 근무 현황(5개년), 가족 돌봄 휴가/휴직 사용자 수(5개년), 직장어린이집 운영비(5개년)

중분류	공시항목	공시 내용
S(사회)	동반성장 평가결과	동반성장 평가 결과등급(5개년)
	장애인 고용현황	-
	구매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3개년)
G(지배구조)	이사회	이사회 회의록,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ESG 운영위원회 운영현황
	자체 감사부서 현황	자체 감사부서 설치 여부, 전문인력 참여 여부
	청렴도 평가결과	청렴도 평가결과(등급)(5개년)

자료: 알리오

한편, KOTRA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ESG 경영활동 및 성과를 정성적, 정량적 정보로 공개하고 있다. KOTRA의 다양한 ESG 경영활동 중 <표 21>과 같이 ESG 경영사례를 선정함에 있어 KOTRA의 고유 사업 분야와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와 ESG 경영 비전에 따른 전략과제 이행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였다.[35]

E(환경) 분야는 조직 내에 환경경영 체계 구축과 실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국제감축 위탁기관[36]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팀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분야의 유망 프로젝트 발주처와 국내 기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설명회 개최, 탄소중립 프로젝트 마케팅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사회) 분야는 인권경영, 직원들의 조직문화, 일과 삶의 균형, 안전,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권경영에 있어서 인권경영 추진 전략 구축을 넘어 KOTRA 3대 인권위험을 건강권, 안전권, 노동권 3개의 위험으로 구분하여 국내/해외별로 진단하고 맞춤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안전경영도 국내와 해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위기·재난사항별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한편, 개발협력과 글로벌 CSR 활동으로 해외 국가에 현지 사회문제 해결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35) 본 연구의 목적인 개발협력기관도 다양한 해외 협력국, 협력 파트너사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성격을 반영한 ESG 경영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36)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 3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친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실적에 이전하는 메커니즘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함

사업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G(지배구조) 분야는 KOTRA는 이사회 활동 강화, 윤리경영을 위한 감사기구 강화, 안전관리스템 강화,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ESG 대응을 지원 체계 수립을 하였다(손수득 외 2021). 윤리경영 측면에서는 인권·윤리경영위원회와 인권·윤리경영 실무위원회 아래의 국내/해외 윤리센터를 둠으로써 체계적인 윤리경영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내부 조직에 대한 윤리경영뿐 아니라 국내, 해외 지역별 윤리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한 윤리조직을 구성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 KOTRA의 ESG 경영사례

영역	활동	세부내용
E(환경)	[온실가스 국제감축 노력] 탄소중립 분야 프로젝트 진출 지원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행을 위해 협력 대상국과 양자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 수행,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 활동 진행
	[그린 프로젝트 수주 지원] 두바이 의료 폐기물 소각로 설비 납품 및 설치 프로젝트	수처리, 매립장 프로젝트, 해외산업단지 내 RE100 대응 등 친환경적 전환하는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바이에 국내 중소기업과 연결하여 지원
	[Green Initiative] 태양광 발전형 해수담수기 오만 실증 시험 CSR	중동지역 담수 부족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인 MEDRC(Middle East Desalination Research Center)에 해수담수기 시제품을 기부 및 설치·시험
S(사회)	[사회적 약자 기업 ESG 지원 강화] 소상공인 수출 지원	소상공인의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요식업 기업의 밀키트 개발 지원하여 성공했으며 2단 달러 규모 수출계약 체결
	[KOTRA 특성 반영한 인권경영] KOTRA 3대 인권위험 진단 및 관리 활동	국내/해외별 인권위험을 3대 위험(건강권, 안전권, 노동권)으로 세분화하여 위험 식별과 개선 활동을 전개 자체 인권지수를 통해 매년 현 상황 진단
	[재난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재난대응매뉴얼 운영	재난위기(소요사태, 피랍, 질병/인명피해/지진 등)에 따른 4단계의 대응 매뉴얼 구축 및 강화
	[현지 사회문제 해결] KOTRA 글로벌 ESG+사업	개도국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 사회공헌활동 지원 확대(운송비 및 무역관 통한 행사 지원)

영역	활동	세부내용
G(지배구조)	[윤리경영 조직 구현] 체계적인 윤리경영 조직 구축	국내/해외별 전담 윤리센터 조직 신설하고 윤리경영 이행점검체계 도입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과 윤리개선 이행력 강화
	[ESG 역량 강화 지원] 중소기업 ESG 대응 지원	우리나라 중소·중견 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해 포럼, 세미나 등 정보 제공 및 ESG 컨설팅 제공하여 대응 역량 강화 지원

자료: KOTRA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전반적으로 KOTRA는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분야의 특징 첫 번째는 외부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데, 보다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KOTRA의 경우 사업영역 본질 자체가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투자유치 확대에 있기에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ESG 경영성과를 창출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ESG 경영 도입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특정 사업을 통해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KOTRA는 해외에 많은 네트워크와 협력국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내/해외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인권경영, 안전경영, 윤리경영 등 ESG 관련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반적인 특징은 ESG 경영에 있어서 KOTRA의 고유 비즈니스 성격을 반영하여 ESG 플랫폼 역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KOFI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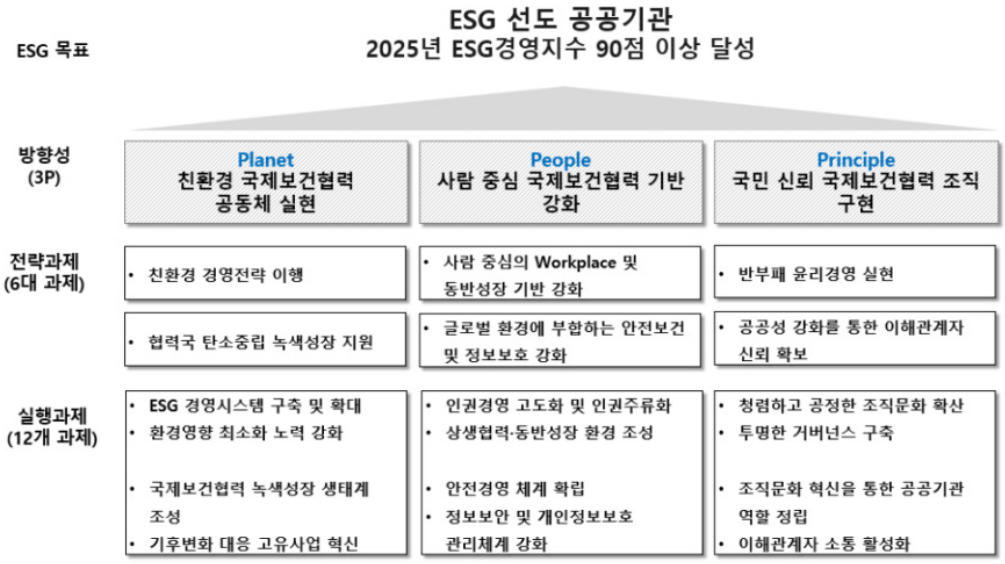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KOFIH)은 2004년에 설립되어 개도국 및 북한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 및 시스템 정착화 지원하는 대표적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KOFIH는 모자보건[37]·보건의료체계 강화, 결핵 등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KOFIH의 <그림 6>의 ESG 경영 전략을 살펴보면 'ESG 선도 공공기관'의 2025년 ESG 경영지수 90점 이상 달성을 목표로 3P 방향성, 6대 전략과제 및 12개 실행과제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실행과제를 살펴보면 KOFIH는 조직 내 ESG 경영의 실천적인 면에서 과제가 많지만, E(환경) 영역에서 '국제보건협력 녹색성장 생태계 조성', '기후변화 대응 고유사업 혁신'실행과제를 수립하여 KOFIH

37)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관련된 정보 제공하여 모성의 임신·출산·양육 지원(국가법령정센터)

의 고유 역량을 반영하여 ESG 경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ESG 경영 전략



자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참고 저자 재구성

KOFIH도 ESG와 관련된 현황과 실적을 알리오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ESG 공시항목을 통해 KOFIH의 ESG 경영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일부 항목은 관리는 하고 있지만, 공시 시점의 기준이 달라 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알리오에 <표 22>에 제시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 KOFIH의 알리오 ESG 관련 공시항목

중분류	공시항목	공시 내용
ESG 현황		-
E(환경)	온실가스 감축실적	3개년 추이
	에너지 사용량	-
	폐기물 발생량	-
	용수 사용량	-
	환경법규위반	위반사항 없음
	저공해 자동차 현황	3개년 추이(1종~3종)
	녹색제품 구매실적	-
S(사회)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안전책임경영보고서, 개인정보보호등급
	사회공헌 활동	봉사활동 실적(5개년), 기부 내역(5개년), 사회공헌활동 결과 내역
	인권경영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남성,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5개년), 출산휴가 사용자 수(5개년), 단축 근무제 사용자 수(5개년), 유연 근무 현황(5개년), 가족돌봄 휴가/휴직 사용자 수(5개년), 직장어린이집 운영비(5개년)
	동반성장 평가결과	-
	장애인 고용현황	5개년 추이
	구매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4개년)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 실적(5개년)
G(지배구조)	이사회	이사회 회의록,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ESG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2023년 1분기 기준 미설치)
	자체 감사부서 현황	자체 감사부서 설치 여부, 전문인력 참여 여부
	청렴도 평가결과	-

자료: 알리오

KOFIH의 ESG 경영 전략에서 나타난 것처럼 ESG 경영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환경) 분야는 사업과 연계한 협력국 환경친화적 보건환경 조성을 골자로 그린 ODA 사업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업의 ESG 경영과 ODA 연계 강화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안사업 선정 시 환경, 인권 등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함으로써 그린 ODA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린 ODA 사업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S(사회) 분야는 기존의 인사, 채용, 교육, 지역상생 등의 업무를 분리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기관의 ESG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 추진 시 모든 과정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형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는 각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지역 시장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파트너십을 통해 광범위한 국제보건협력체계 강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G(지배구조) 분야는 KOFIH가 ESG 혁신경영체계를 구축하여 ESG 경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최고의사결정기구로의 이사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알리오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경영 차원에서의 ESG 경영의 도입을 위한 체계 마련을 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KOFIH의 고유 사업은 SDG 3(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대내외적으로 신종 감염병, 기후위기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질병 치료 강화, 보건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세부 실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즉, 사업을 통해 ESG의 S(사회) 분야 측면에서 이해관계자(직원, 고객 등)의 건강과 안전 증진을 중심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업은 2021년 기준,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사업으로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등 보건의료인력 교육사업, 코로나 19 대응, 의료시설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의 순으로 투입된 예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KOFIH 2022). 또한 국내 대상으로 의료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의료케어서비스를 제공함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보건의료는 주민 개인의 생활 수준 향상부터 넓게는 국제사회의 건강, 안전,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의료진, 연구가와 사업 대상의 지역주민들이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이에 따라서 KOFIH는 조직 내에 임직원만 한정하지 않고, 고유 사업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안전 및 보건 역량 강화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 사례

사업	세부내용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모자보건 서비스 질 제고, 관련 의료체계 강화 지원 보건인식 개선 프로그램 지원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2007년부터 진행된 글로벌 보건의료인력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간호사, 질병 연구가 등 보건 역량 강화
의료시설 운영관리 컨설팅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건립되는 병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등 병원 자립 운영 지원

자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2021 KOFIH 연차보고서

KOFIH의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영역별 경영의 특징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응 및 외부 ESG 경영 요구에 따른 ESG 경영체계 구축, ESG 경영성과 창출에 집중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조직 개편 등을 통한 조직 내부적인 환경과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 또한 KOFIH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의 고유 성격을 반영한 ESG 경영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데, 개발도상국 대상 개발협력 사업과 국내 사업에서 공공·민간의 다양한 기업(기관)들과 협업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문성과 동반성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국내 공공기관 ESG 경영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ESG 경영사례를 통해 국내 공공기관 ESG 경영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국내 공공기관은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ESG 경영 관련 정보공시 강화에 따라 조직의 경영 관점에서 ESG 경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부의 요구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ESG 경영 전략과 조직체계 수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전략과 세부과제에 따른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배출량 등을 정량적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정량적 성과 변화를 확인하여 과제에 따라 감축 및 확대를 위한 활동을 수립하여 정성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외부의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각 평가기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의 공개를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사업을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OTRA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위탁기관 선정과 KOFIH의 그린 ODA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KOTRA, KOFIH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관 성격을 반영하여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KOTRA는 국내외 기업과 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업(기관) 선정 시 ESG를 고려하고 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KOFIH는 전 세계 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린 ODA 사업과 같이 ESG를 고려하여 고유 사업을 변화시켰다. 즉, 기관의 고유 성격을 반영하여 조직의 경영 관점에서 ESG 경영을 확대하였다.

2. 해외 원조기관 ESG 이행 사례

앞서 살펴본 국내 공공기관은 정부의 ESG 선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조직 차원의 ESG 경영 전략 수립과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격을 반영한 사업을 통해 ESG 경영을 이행하고 있다. 반면, 해외 원조기관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사회발전, 복지증진을 위해 개발원조사업을 운영하는 역할의 특성이 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협력 파트너사, 고객, 수혜자가 발생하는 특수성을 가진다.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원조기관들은 ESG 경영 선포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ESG 경영에 대해 명확하게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38]를 따르면서 환경보호, 인권, 안전 등을 추구하거나 UN SDGs를 중심으로 개도국 관련 사업 추진 시 SDGs 목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원조기관 중 프랑스 개발청(AFD)과 호주 외교통상부(DFAT)의 사례를 통해 해외 원조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지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가. 프랑스 개발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프랑스 개발청(이하 AFD)은 개발 및 국제 연대에 관한 프랑스의 정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국제 협력 개발위원회(CICID)에서 정의된 지침을 따르면서 프랑스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이행을 책임지고 주요 원조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또한 공공 부문과 NGO를 위한 자금 조달, 연구 출판,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교육 및 프랑스의 인식 제고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AFD는 2018년 열렸던 국제 협력 개발위원회(CICID)에서 5가지 주요 과제로 국제 안전성, 기후, 교육, 남녀평등, 건강으로 선정하였고, 주요 과제로 100% 파리협정 이행, 100% 소셜 링크, 3D[39] 개발, 비정부기구 지원, 파트너십 5가지로 세부내용은 <표 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38) 사업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 위험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39) 국방, 외교, 개발(Défense, Diplomatie et Développement)을 의미함

〈표 24〉 AFD 주요 과제

AFD 주요과제	세부 내용
100% 파리 협정 이행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및 탄력적인 개발이 중요하기에 파리협정을 완벽히 이행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지정
100% 소셜 링크	인류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프랑스 개발청(AFD)은 불평등에 대항하여 싸우고 인구와 영토 사이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조. 그리고 교육과 남녀평등은 "100% 소셜 링크"의 두 가지 주요사항이라고 함
3D 개발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조치 없이는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평화와 안정이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을 수 없기에 군사, 외교, 개발을 통해 인도주의, 외교, 군사로 분쟁 방지에 중점을 둘 수 있는 3D 개발을 지정
비정부기구 지원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위자의 역할은 중요하기에 프랑스 개발청(AFD)은 비정부기구의 자금 조달을 지정
파트너십	아젠다 2030, 파리협정은 모든 수준에서 집단적이고 파트너십을 강조한 대응을 요구하기에 이를 프랑스 개발청(AFD) 전략의 최우선 지표 중 하나로 지정

자료: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 현황과 추진과제

AFD는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가속화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기후, 생물 다양성, 평화, 교육, 도시개발, 보건 및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어, 프랑스의 해외 부서 및 영토와 다른 115개국에서 3,2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30 주요 과제로 Planet, People, Peace, Prosperity and Partnership을 핵심 주제로 내세웠으며, 이는 지난 5년의 100% 파리협정, 100% 소셜링크의 다음 단계로 여겨진다.

특히, AFD는 2018-2022년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6가지 원칙을 ESG 지표와 매칭하여 어떤 ESG 지표를 중요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표 25>에 정리하였다.

첫째, 원칙 1은 ESG 평가지표로 보면 S(사회) 영역의 교육과 고객 측면과 관련이 있다. 세부내용에서 환경 및 사회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고객의 참여 부분은 고객 만족과 연계할 수 있고, 본사 및 현장 운영팀을 교육하거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콘텐츠를 프로젝트에 통합하는 부분은

임직원 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다.

둘째, 원칙 2는 G(지배구조)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 책임과 관련이 있다. 원칙 2는 이사회 구성원과 경영진의 참여를 촉진하거나 이사회의 활동에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ESG 평가지표 상 이사회 구성 및 책임의 지표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원칙 3은 ESG 일반 분야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참여 확대, 정보공시와 관련이 있다. 세부내용에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투명성 이니셔티브(IATI)에 회원을 유지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ESG 평가지표에서 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통 채널을 통해 조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점과 유사하고 정보공시 중 가입한 협회를 공개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원칙 4는 G(지배구조)의 반부패, 윤리 부문과 관련이 있다. 원칙 4에서는 기관의 재무조사, 본사 및 자회사의 윤리교육, 반부패 및 직업윤리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ESG 평가지표에서 반부패 정책 및 교육, 윤리 정책 및 교육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원칙 5는 S(사회) 영역의 인적자원 관리 측면과 관련이 있다. 원칙 5는 인적자원의 관리, 양성평등, 다양성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ESG 평가지표에서 임직원 교육 및 성과평가, 양성평등, 다양성 지표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원칙 6은 E(환경) 영역의 에너지사용, 온실가스 저감, S(사회) 영역의 신규채용과 관련이 있다. 원칙 6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확보 및 책임 있는 이동(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저감, 탄소발자국)에 대한 내용은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저감과 연계할 수 있고, 사회적 환경적 책임이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내용은 채용과 연계할 수 있다.

〈표 25〉 AFD Group'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y

원칙	세부내용		ESG 지표
1. 지속 가능한 운영 개발	1) 환경 및 사회문제의 프로젝트 관리 시 고객 참여와 지원 2) 본사 및 현장 운영팀 교육 3) 지속 가능한 개발을 프로젝트에 통합	→	[S(사회)-교육, 고객] • 임직원 교육 • 고객 만족
2. 거버넌스 및 소유 구조	1) 이사회 구성원과 경영진의 참여 촉진 2) CSR 홍보대사 임명 3) CSR 위원회	→	[G(지배구조)] • 이사회 구성 • 이사회 책임

원칙	세부내용		ESG 지표
3. 투명성 및 이해관계자 소통	1) 이해관계자 소통 2) 투명성 이니셔티브(IATI) 회원	→	[ESG 일반] • 이해관계자 소통 및 참여 확대 • 정보공시
4. 직업윤리 및 재무	1) 재무조사 2) 본사 및 자회사 윤리교육 3) 반부패 및 직업윤리 관리 시스템 구축	→	[G(지배구조)-반부패/윤리] • 반부패 • 윤리
5. 사회적 책임감과 공정성을 갖춘 직원 관리	1) 인적자원 관리 2) 양성평등 3) 다양성	→	[S(사회)-인적자원관리] • 임직원 교육, 관리 • 양성평등, 다양성
6. 1차 환경 및 사회 발자국 관리	1) 에너지 효율 2) 책임감 있는 이동(탄소발자국) 3) 사회적 환경적 책임이 있는 사람	→	[E(환경)-에너지] • 에너지사용 • 온실가스 저감 [S(사회)-인적자원관리] • 신규채용

자료: AFD Group'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Y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또한 AFD는 2017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를 영문으로도 함께 발행하였으며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ESG 관련 내용과 In-House라는 이름으로 기관 내부에서의 ESG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AFD CSR 2017). 2018년에는 프랑스어로만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AFD Document De Reference 2018), 2019년에도 프랑스어로만 보고서를 공개하였다(Rapport d'activite et de responsabilite societale 2019). GRI Standards를 기반으로 작성되던 보고서는 이후 발행되지 않았다.

이후 2022년부터 UN SDGs를 기준으로 보고서를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지난 보고서의 ESG 구분 기준을 적용한다면 ESG를 경영의 관점이 아닌 사업수행의 관점으로만 보고하기 시작하였다. 해당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 및 대표 사례를 통해 AFD는 ESG 경영의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다만 보고서 구성상 아쉬운 점은 ESG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UN SDGs를 중심으로 사례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ESG를 경영과 사업의 관점으로 구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사례에서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의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기

관의 배출량 감축 활동으로 구분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기관이 해당 활동에 대하여 다년도 추세를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분명한 것은 내부 임직원의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는 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1) 100% Link for Population

주요 과제 중 하나인 100% 소셜링크 활동의 일환으로 소개되고 있는 NENGO 프로젝트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성폭력이 만연한 가운데 NENGO 프로젝트는 여성들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다. ESG 측면에서 사회 영역의 활동과 연계해 볼 수 있으며 UN SDGs로는 Gender Equality, Good Health and Well-being(Health and Social Protection)으로 볼 수 있다.

[사업사례] Population – THE NENGO project

2019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성별 기반 및 성폭력 피해자들은 전체적인 치료(의료, 심리 및 법률 지원 등)를 받는다. 프로그램의 우수한 구현과 효율성을 인정받았는데, 2021년에 945명의 생존자가 지원 혜택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6백만 유로의 추가 자금 지원 덕분에 7,875명의 수혜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NENGO 프로젝트는 아미티에 시노센트라프리카인(Amitié Sino-Centrafricaine) 대학 병원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여성 변호사 협회의 의료 종사자와 변호사의 역량을 강화했다.

2) 100% Paris Agreement Acting for The Planet

주요 과제 중 하나인 100% 파리협정 활동의 일환으로 콜롬비아의 바랑키야는 최초의 생물다양성 도시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실행하였다. ESG 측면에서 환경 및 사회분야의 활동과 연계해 볼 수 있으며 UN SDGs로는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Climate Action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과 환경보호, 재난 위험 관리 및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사회적 포용과 연계성이 있다.

[사업사례] Planet – SOY BARRANQUILLA

2020년부터 2020-2023년 개발 계획 "I am Barranquilla" 프로젝트를 콜롬비아 도시 Barranquilla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생물 다양성 복원 및 보호를 목표로 1억 2천만 유로 상당의 콜롬비아 페소를 융자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의 위험을 관리하고 및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AFD가 Barranquilla시에서 진행한 첫 번째 대출이자 AFD가 운영하는 남미 국가 중 지역 통화로 진행한 첫 번째 대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3D Development thinking: Diplomacy, Defense, Development, Acting for peace

주요 과제 중 하나인 3D개발 활동의 일환으로 식수, 위생 및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공평하고 지속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이다. ESG 측면에서는 환경 및 사회 분야의 활동과 연계해 볼 수 있으며 UN SDGs로는 Clean Water and Sanitation으로 볼 수 있다.

[사업사례] Peace – THE NEXUS PROJECT

2021년 나이지리아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서 틸라베리(TILLABÉRI), 타후아(TAHOUA), 디파(DIFFA), 마라디(MARADI) 지역에서만 이미 기후 관련 충격에 취약했던 약 26만 명의 내부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이웃한 세 나라는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이며 이 나라들의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민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Nexus HDP 프로젝트는 3개 국경 지역의 10개 지역에서 식량 안보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주의-개발-평화 접근방식의 이행을 위한 시범 이니셔티브를 개발하였다. 이니셔티브는 지역 및 해당 국가의 농민에 대한 서비스, 농업 목축 투자, 분쟁 예방 등 주요 운영방식을 제공하고, 6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식량 불안정과 지역의 위기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4) Partnership by Design, Acting with others for Greater Impact

주요 과제 중 하나인 파트너십 활동의 일환으로 현재 5개 국가에서 진행 중인 TERSAA 프로그램은 하천 하류에 대한 더 나은 제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지역의 농업 및 식품 시스템의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ESG 측면에서 사회 분야의 활동과 연계해 볼 수 있으며 UN SDGs로는 Partnership for the Goals로 볼 수 있다.

[사업사례] Partnership – ACTING FOR LIFE

베냉, 부르키나파소, 토고, 콜롬비아 및 페루의 농업 및 식량 시스템 전환 강화하는 본 프로젝트는 전체 시스템의 다운스트림 부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지 파트너 8개 사와 함께 5개국(베냉, 부르키나파소, 토고, 콜롬비아, 페루)에서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시장과 가족농업의 더 나은 배분을 지원하며, 소비자의 요구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 현지에서 생산된 양질의 식품을 활용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문화되고 더욱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파트너십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생산자, 협회, 무역업자 및 소비자를 포함한 14,200명의 수혜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5) Decent work, Responsible Consumption Acting for Prosperity

신규 주요 과제 중 하나인 Prosperity 활동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중 도시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ESG 측면에서 사회 분야의 활동과 연계해 볼 수 있으며 UN

SDGs는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로 볼 수 있다.

[사업사례] Prosperity – THE YAOUNDÉ CITY CENTRE PROJECT

YAOUNDÉ(330만 명의 거주자)에서 사람들은 주로 택시(여행의 40%) 또는 도보(33%)를 이용하는데, 보행자들과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한 거리의 시설들이 매우 열악하다. 이로 인해 도시에서 매일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당한다. 도시개발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교통 인프라 계획에 따라, 핵심 인프라를 개선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6개 교차로, 2개 버스 정류장 및 보행자 도로(포장 및 교차로)를 재설계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활동성을 강조하는(특히, 걷기) 아이디어는 야운데 도시 공동체의 혁신적 접근방식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공 공간을 설계하기 위한 도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받는다. 그 결과, 약 43만 명의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운송 수단에 대한 개선된 접근이 가능해졌고, 버스 정류장의 안전성, 쾌적성, 혼잡 감소, 대기질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연간 8,000 tCO2eq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게 되었다.

나.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호주 외교통상부(이하 DFAT)는 호주의 총 ODA 중 약 94%를 집행하고 있으며(홍은경 2018),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담당하는 호주의 공식 기관이다. DFAT은 ESG와 관련하여 <표 27>에 제시된 것처럼 인권, 안전 등 특정 영역별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ESG 경영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Environment and Social Safeguard Policy를 준수하면서 보호 원칙에 따라 원조 프로그램 추진하고 있다. 이때 보호 원칙은'정책 및 계획 - 설계 및 조달 - 실행 및 성과관리 - 검토 및 평가'의 프로세스에 적용된다. 5가지의 보호 원칙을 ESG 평가 및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표와 맵핑해 본 결과 <표 26>와 같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원칙 1은 ESG 평가지표로 보면 S(사회) 영역의 인권과 소비자 측면과 관련이 있다. 기업에는 주요 이해관계자가 소비자이지만 개발협력기관은 개발도상국의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이 소비자이자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기관의 성격이 다를 뿐 주요 이해관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미는 같다. 또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권리,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S(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하는 다양성 존중의 지표를 준수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원칙 2는 G(지배구조)의 리스크 관리와 E(환경)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측면과 관련이 있다. 원칙 2는 원조 사업을 진행할 때 환경 및 잠재적인 환경, 사회적 영향을 식별하여 대응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는 ESG 평가지표 상 조직에 미치는 사회(인권, 임직원, 지역사회 등), 환경(기후변화, 환경규제 등), 시장, 사업 등 리스크 관리와 기후변화로 인한 조직에 미치는 기회와 위험을 식별하여 관리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원칙 3은 ESG 일반 분야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투명한 정보공시와 관련이 있다. 원칙 3은 이해관계자들이 의미 있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며 원조 사업에 대한 현황과 성과를 투명

하게 공개하기를 요구한다. 이는 ESG 평가지표에서 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통 채널을 통해 조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이 경영 현황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보공시 주기, 주요 이슈 공개 등을 요구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원칙 4는 S(사회)의 공정운영 분야에서 협력사의 ESG 성장 촉진, 동반성장과 관련이 있다. 개발협력기관은 원조 사업을 진행할 때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함께 진행한다. 원칙 4는 파트너가 국가 법률 및 정책을 준수하고 환경 및 사회, 거버넌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기를 요구한다. 이는 ESG 평가지표에서 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협력사(파트너사)를 선정하고 그 협력사(파트너사)가 ESG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인센티브 등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요구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원칙 5는 S(사회) 영역의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보존과 관련이 있다. 원칙 5는 개발도상국에 사업 및 투자를 진행하면서 환경 및 사회적 결과 개선을 촉구한다. 이는 ESG 평가지표에서 지역사회의 활동을 통해 자원보존,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6〉 DFAT Environment and Social Safeguard Policy의 보호 원칙

원칙	세부내용		ESG 지표
원칙 1. 해를 끼치지 않는다.	어린이, 여성, 원주민 등의 권리, 건강, 안전 및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S(사회)-인권, 소비자] • 다양성 존중 및 차별 금지 • 고객의 건강과 안전 보호
원칙 2.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한다.	잠재적인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설계 프로세스 초기 단계에서 식별하고 관리한다.	→	[G(지배구조)] • ESG 리스크 관리 [E(환경)]] •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 관리
원칙 3.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간섭 및 강요 없이 의미 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접근 가능한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또한 원조 투명성 원칙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다.	→	[ESG 일반] • 이해관계자 소통 및 참여 확대 • 정보공시

원칙	세부내용		ESG 지표
원칙 4. 파트너와 효과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다자간, 양자간, NGO 및 민간 부문 개발 파트너와 협력하여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이 본 정책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	[S(사회)-공정운영] • 협력사 ESG 역량 촉진 • 동반성장
원칙 5. 환경 및 사회적 결과 개선을 촉진한다.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원조 투자함으로써 환경 및 사회적 결과 개선을 촉진한다.	→	[S(사회)-지역사회] •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보존 노력

자료: ENVIRONMENT AND SOCIAL SAFEGUARD POLICY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한편, DFAT은 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 기후 및 재난 위험을 파악하여 파트너사가 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ESG 경영 측면에서 조직이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요구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직의 ESG와 관련된 부정적 이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적 비용이나 기업 이미지 하락 등의 결과로 직결되기 때문에 조직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DFAT은 원조 투자를 진행할 때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ESIA[40])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한 위험 수준을 등급에 따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원조 사업을 진행하는 파트너사에도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따른 관리 계획(ESMF[41])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위험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42], 어린이 등 취약계층[43], 이주 및 재정착[44], 원주민 보호[45], 건강 및 안전[46]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는지 평가하고 관리한다. 이때 DFAT이 구축하고 있는 기후변화 행동전략, 직장 보건 안전 정책, 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 전략 등을 참고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 추진 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0)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식별하여 예측, 평가하고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
41) 활동의 잠재적인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범위를 설명하고 식별, 평가 및 관리에 접근하는 방식 설명하는 문서
42) 개발도상국의 생물다양성, 대기, 수질 오염물질 최소화, 폐기물 및 유해물질 저감,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등
43) 아동학대, 성적 착취 학대 및 괴롭힘, 폭력 등 어린이, 여성, 원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관한 보호 등
44) 이주 및 재정착이 이루어질 때 물리적(주거용 토지 등 완전한 손실) 및 경제적 이동(자산 등 부에 대한 완전한 손실)을 최소화
45) 원주민의 사회적/문화적 가치 등
46) 원조 사업 대상의 지역사회 건강 및 안전, 협력 파트너사 작업자의 건강 안전 등

〈표 27〉 DFAT의 사회 및 환경 관련 전략의 목표

전략	주요 목적
기후변화 행동전략	• 파트너 국가가 기후변화 적응하고 기후관련 영향 계획 수립 및 대응 지원 •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저탄소 개발 전환 촉진 • 민간 부문 투자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혁신적 솔루션 지원
직장 보건 안전 정책	• 근로자와 원조 사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
성평등 여성역량 강화 전략	• 의사결정, 리더십 및 평화 구축에서 여성의 참여 강화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인권 침해 종식

자료: 기후변화 행동전략, 직장 보건 안전 정책, 성평등 여성역량 강화 전략

앞서 DFAT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과 준수하고 있는 보호 원칙이 ESG와 어떻게 연계되고 해석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원조 사업을 통해 어떻게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DFAT은 기후변화,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주제로 원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DFAT의 2021-2022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DFAT은 기후변화 해결에 관한 재정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시켰으며 여성의 건강과 안전, 권리 증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DFAT 2022).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호주는 2030년까지 2005년보다 탄소 배출량을 26~28%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리협정을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DFAT 홈페이지). 이는 유럽연합(EU)에서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due diligence)[47] 의무화 발표와 온실가스 Scope 3 공시 의무화[48] 등에 따라 기후정보와 인권 관련 활동과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ESG 경영 중에서 E(환경) 영역의 기후변화 대응, S(사회) 영역의 인권 강화 분야에서 DFAT의 사업 사례를 살펴보게 되었다.

1)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DFAT은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순위에 두고 취약한 지역사회에 개발 지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태평양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여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

47) 기업의 협력업체 등 공급망 가치사슬에서 인권, 환경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제도
48) 기업의 밸류체인(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 등 삶에 큰 위험이기 때문에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시설인 AIFFP(Australian Infrastructure Financing Facility for the Pacific)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된 개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태평양 지역의 저탄소 개발로 전환 추진, 파트너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민간 부문 투자 장려하는 솔루션을 포함한 기후변화에 대한 혁신적 솔루션 지원의 3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DFAT 2019). 또한 호주-태평양 기후 파트너십(Australian-Pacific Climate Partnership)을 맺음으로써 태평양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기후 및 재해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2018~2022년까지 진행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태평양 개발도상국의 태양열, 풍력, 수력 등 저탄소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화석연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개발도상국 대상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지역이 재생에너지로 스스로 전환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고볼 수 있다. ESG 경영에서도 조직 내에서 탄소 배출 감축, 에너지 절약 등에서 더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의 범위를 협력사(파트너사), 고객 등 조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그중 아래의 사업들은 DFAT 홈페이지와 연례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업으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ESG 경영과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사업사례]재생에너지 개발 투자 지원 – 티나 강 수력 발전 프로젝트

세계은행(World Bank)과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과 함께 공동 출자하여 티나 강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티나 강은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인근의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인 솔로몬제도에 있는 강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발전이 국가 전력생산의 97%를 차지하여 전력요금도 높고 탄소배출이 많다. 티나 강의 수력 발전을 지원하면서 탄소배출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친환경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사례]태평양 기후 및 해양 지원 프로그램

피지 기상청과 협력하여 고품질의 기후 모니터링과 계절별 기후 예측 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농부들에게 현지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2018년~2022년까지 2,330만 달러가 투자된다. 태평양 지역의 주요 작물인 사탕수수는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가치가 큰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기후 예측 정보를 통해 스스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장애인, 여성 등의 권리 보호와 인권 강화

DFAT은 개발도상국을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및 인권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2016년에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과 여

성역량 강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5년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5천만 달러의 양성평등기금을 설립하여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6,500만 달러로 기금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투자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개발 지원 프로그램에서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평가 및 점검을 진행하는 결과를 성과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프로그램 사업 운영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여기며 태평양 지역의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 성 기반 폭력 생존자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 해외 원조기관 ESG 경영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AFD)와 호주(DFAT)의 사례를 통해 해외 원조기관 ESG 경영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AFD는 2019년까지 경영 측면의 ESG와 사업 운영 측면의 ESG를 함께 보고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하지만, 2022년 이후 AFD와 DFAT 모두 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ESG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는 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포함한 외부 공시 정보에서도 기관의 경영을 위한 ESG 지표나 기관의 ESG 운영성과와 관련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AFD와 DFAT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이나, 사회 및 환경 관련 전략을 공개하고 있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ESG 경영지표를 매칭하여 기관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ESG 경영지표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ESG 경영지표 중 환경 3가지, 사회 10가지, 지배구조 및 일반 7가지 지표를 확인하였으며 사회 관련 지표의 수가 가장 많았다. 세부 지표들을 살펴보자면 환경 지표에서는 에너지사용,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관리로 3가지 지표를 확인하였다. 사회 지표에서는 임직원 교육, 고객만족, 임직원 관리, 양성평등, 다양성 존중 및 차별 금지, 신규채용, 고객의 건강과 안전 보호,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보존 노력, 협력사 ESG 역량 촉진, 동반성장으로 10가지 지표를 확인하였다. 지배구조 및 일반 지표에서는 이사회 구성, 이사회 책임, 반부패, 윤리, 이해관계자 소통 및 참여 확대, 정보공시, ESG 리스크 관리로 7가지 지표를 확인하였다.

AFD와 DFAT은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ESG를 수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AFD의 경우 UN SDGs와 연계하여 각 사례들을 설명하고 사회공헌, 지역사회가 주로 연계되었으며 환경과 관련된 이슈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었다. DFAT의 경우 보유 전략과 연계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보호 및 강화와 관련된 활동으로 확인되었다. AFD와 DFAT의 ESG 사업을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환경에서는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수자원 관리, 사회에서는 안전, 인권, 지역사회 개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원조기관 운영 측면의 ESG 경영지표 및 사업 측면의 ESG 경영지표를 분석하

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갖는 대표성은 한계점이 있다. 다만 기관의 주요 정책과 전략을 기반으로 간접 확인한 ESG 지표와 사업의 수행에 내포된 ESG 키워드는 개발협력기관의 핵심 ESG 이슈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3. 소결

앞서 분석한 국내 공공기관 및 해외 원조기관의 ESG 경영사례를 통해 기관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국내 공공기관은 기관의 ESG 경영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는 경영평가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ESG 경영전략, 전략과제, 세부과제 등을 수립하고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통지표와 기관별 특성지표로 구분되며 기관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은 사업을 통한 ESG 경영 실천과 연계해 볼 수 있다. 다만 국내 공공기관은 특성상 자원 및 예산 등이 한정적이므로 기관의 주요 사업을 통한 ESG 경영 외의 ESG와 관련된 사업을 시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외 원조기관은 기관의 ESG 경영에 대하여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였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책 및 전략을 통해 ESG 지표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사한 기관별 공개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었지만, 기관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 운영 사례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어 사업 운영 측면의 ESG 지표를 확인하였다.

국내 공공기관은 기관의 경영 관점에서 ESG에 접근하고 실질적인 이행은 주요 사업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었으며 해외 원조기관의 경우 사업수행을 통한 ESG 경영 수행이 기관 ESG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해외 원조기관은 국내 공공기관보다 ESG 경영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였기에 지금의 변화는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는 개발협력기관이 ESG 경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중중대성(Double Materiality Assessment)의 개념을 적용하여 기후위기나 COVID-19, 국제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이 기관의 ESG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기관이 사업을 통해 환경·사회적 측면에 주는 영향성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개발협력기관의 ESG 경영 접근법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향후에는 개발협력기관으로서 기관 차원의 ESG 경영에 따른 환경·사회적 영향도와 기관이 ESG 관련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미치는 환경·사회적 영향도를 비교하여 어떤 영역에서의 ESG 경영활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 어떤 관점으로 ESG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추가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Ⅴ. 결론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함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기업,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에서는 ESG 경영과 관련되어 평가 및 정보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분야 또는 산업별로 ESG 경영 전략 수립과 성과관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공공서비스 또한 수혜자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이행 의무로 반영하고 있다. 다만, ESG 경영은 민간 조직에 좀 더 집중된 만큼 공공기관에서는 고도화된 추진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1. 개발협력기관 ESG 설계 방향 제안

KOICA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체로의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임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람들의 삶 개선으로 세계평화 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개발협력기관이다. 따라서 기관 운영에 있어 ESG 경영을 이행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필요 접근이며, 나아가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ESG 경영을 확산시키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KOICA는 2021년 12월 ESG 경영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경영 강화, 사회적가치 경영 고도화, 윤리·준법 혁신 경영 구현 등 3대 부문별 전략 방향을 설정하였다. KOICA의 ESG 경영이란 글로벌 가치(SDGs)를 실현하는 개발협력 선도기관으로서 기관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지구환경과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도 향상시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으로 정의한다.

〈표 28〉 ESG 경영 전략 체계도

기관 비전	글로벌 가치를 실현하고 상생의 국익을 창출하는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기관		
전략 목표	ESG 경영지수 공공부문 최우수 달성		
전략 방향	[환경 Environment] 탄소중립 경영 강화	[사회 Social] 사회적가치 경영 고도화	[지배구조 Governance] 윤리·준법, 혁신 경영 구현
전략 과제 (11대)	**1.1. 개도국 탄소중립 및 기후 회복력 향상 지원** 중점 **1.2.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환경경영 이행** 중점	**2.1. 글로벌 안전경영** 중점 **2.2. 인권기반 개발협력 확대** 중점 2.3. 개발협력 일자리 창출 2.4. 지역사회 사회공헌 강화 2.5. 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 확대 2.6. 공정한 인사와 채용	3.1. 윤리준법 경영 **3.2. 국민소통 확대** 중점 3.3. 이사회 역할 강화를 통한 책임경영

자료: KOICA 내부문서

전략 체계도에서 볼 수 있듯이 KOICA는 기관 비전에 SDGs 달성을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KOICA는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기관의 지속가능성까지도 포함하여 고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KOICA는 ESG 경영 전략 수립과 함께 이행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어 실적을 집계하고 있다.

〈표 29〉 2022 ESG 경영지수

구분	지표
환경(E)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매율
	환경법규 위반 현황
사회(S)	국민인식도 조사
	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
	사회적가치 구현
	정보공개평가
	경영정보공시
	동반성장평가
지배구조(G)	종합청렴도 평가
	이사회 경영 책무성 강화지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자료: KOICA 내부문서

이 외에도, 코이카는 기관의 전략방향 중 하나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촉진인 만큼, 다양한 전략과 사업을 통해 ESG를 상당 부분 이미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코이카는「환경분야 ESG 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개정하며 기후위기 시대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환경 분야 ESG 선도를 위해 전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관의 핵심가치(Planet, 지구환경) 및 범분야로서 기후환경을 주류화하고, 프로그램 기반의 통합적 접근 사업을 추진하며, SDGs-KOICA 성과프레임워크에서 기후행동분야 지표를 바탕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지침을 제정하여 협력대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동 지침을 바탕으로 사업의 발굴 및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행, 모니터링 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환경·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코이카 사업유형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별협력사업에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수행에 따른 인권위험을 완화하고 인권 주류화를 위한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UN 인권이사

회 국가별 정례검토(UPR), OECD DAC 위원회의 「OECD 성적 착취·성학대·성폭력 종식(SEAH) 가이드라인」 등의 권고를 이행하고, 국제개발협력 및 인권 부문의 범정부 종합 정책 그리고 코이카의 기관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영향평가는 사업 착수 전 협력국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잠재적 및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한 사전점검 제도이며, 계약체결 시 작성하는 계약서에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를 도입하여 인권영향평가 이행 및 사업 진행 시 인권 존중 책임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코이카는 2021년, 12개 분야별로 '분야별 중기전략(2021-2025)'을 수립하였고, 동 전략의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분야별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사업 성과관리 및 신규사업 기획에 활용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지표를 토대로 사업의 성과관리를 체계화하여 양적 위주의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 성과에 대한 관리 및 분석을 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해외 협력국과의 사업 수행을 통해 ESG를 이행하고 있는 셈이다.

〈표 30〉 SDGs-KOICA 성과지표 중 ESG 관련 지표

분야	성과(Outcome) 지표	산출물(Output) 지표
환경 (E)	[SDG 13.2.2] 감소된 온실가스 배출량 [SDG 13.3.1] 기후변화 적응, 기술이전, 개발계획 수립의 결과로 수혜가 예상되는 인구수(명)	• 신재생에너지 설치용량(kW) • 친환경모빌리티 보급수(개수) • 탄소중립 분야 역량강화 수혜자수(명) • 기후회복력 향상 수혜자(명)
사회 (S)	[SDG 16.6.2] 가장 최근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비율 [SDG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책의 채택 및 이행도 [SDG 4.3.1] 정규 및 비정규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수)	• 인권관련기관 지원 시설 수 • 대중이 접근가능한 인권 정보 관련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수 • 취약계층 권리옹호활동(자조모임, 인식개선, 캠페인 등) 참가자 수 • 젠더기반폭력 대응 서비스(상담, 신고, 의료, 법조, 수사 등) 제공 횟수

분야	성과(Outcome) 지표	산출물(Output) 지표
지배구조 (G)	[SDG 16.3.3] 지난 2년간 분쟁을 겪었고 형태별로 공식 혹은 비공식 분쟁해결 매커니즘에 접근했던 인구의 비율 [SDG 16.6.2] 가장 최근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비율 [SDG 1.4.1] 기초 공공서비스에 접근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SDG 2.4.1]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면적 비율 [SDG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책의 채택 및 이행도	• 거버넌스, 법치, 분쟁갈등 관리 및 예방 관련 메커니즘 구축 및 활동 건수 • 국가 기본 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 분야 필수 법/제도/정책/계획/컨설팅 수립 건수 • 선거, 입법, 민주적 참여 관련 훈련, 교육 참가 정부 관계자/시민 수 • 제공된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 개수 • 행정서비스 현대화, 공공재정, 경제운영 관련 훈련, 교육 참가 정부 관계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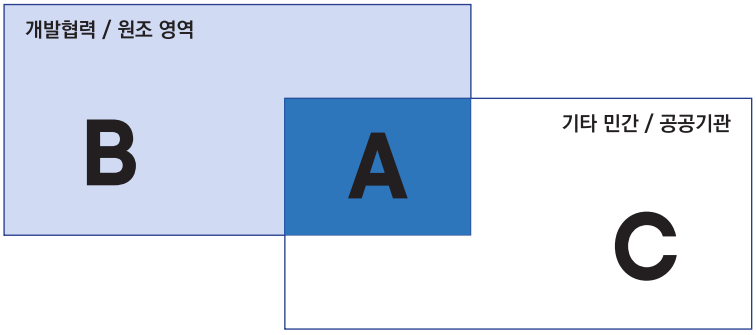
자료: KOICA 내부문서

KOICA의 주요 사업은 타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국내 수혜자가 아닌 개발도상국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KOICA는 공공기관이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특수성이 있으며, 이에 ESG 이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에서의 복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앞서 공공기관 사례를 살펴보면, 기관의 ESG 이행에 대한 평가가 경영평가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ESG 이행은 사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OTRA 및 KOFIH는 KOICA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사업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으로,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기관의 실질적인 ESG 이행은 기관의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기관별 사업에서 이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KOTRA 및 KOFIH 또한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영평가에 맞추어 조직 내 다양한 ESG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들의 실질적인 이행은 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거나 사업 현장에서의 ESG 확산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관련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 개발협력기관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더욱이 ESG 이행에 대한 별도의 방침이 없음에도 AFD와 DFAT 모두 SDGs 이행 관점에서

ESG 이행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협력기관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개념이 아닌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관점에서 ESG보다는 SDGs 기준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OICA의 경우, ESG 경영은 대체적으로 기관의 조직 및 운영 측면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으며, 기관의 사업을 반영하는데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경영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KOICA의 사업이 ESG 평가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7> ESG 경영 관리지표 접근 방향성



KOICA의 ESG 경영지표를 보완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7>과 같은 지표 접근 방법을 고려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주 범위인 A 영역의 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A는 모든 조직에서 이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충족사항이다. 또한 조직의 규모, 특성, 지역 등과 상관없이 필수적이고(Essential), 보편적이고(Universal), 동형화(Isomorphism) 현상을 가진다. B 영역은 개발협력기관의 비즈니스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특수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다.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관 전체가 아닌 개별 사업단위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향후 추가 연구를 고려해볼 수 있다. 앞서 AFD와 DFAT을 통해 알아본 해외 개발협력기관의 사례를 보면 개발협력기관 특성상 ESG 사업관리지표는 SDGs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후 ESG 사업관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보다 많은 기관의 ESG 사업 사례를 통해 실제 SDGs 외에도 적용되는 ESG 지표들을 분석하여 개발협력기관만의 ESG 경영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해 보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C 영역은 필수적, 선택적 영역은 아니지만, 타 영역에서의 좋은 사례가 때로는 개발협력기관의 ESG를 추진하는데 있어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국내외 평가체계와 기관 사례 분석을 통해 기관 공통 지표 및 국내외 특성 ESG 지표를 분석하여 개발협력기관의 ESG를 내재화할 수 있는, 기관이 충분히 적용 및 운영 가능한 ESG 관리지표로

<표 31>의‘개발협력기관의 ESG 경영 관리지표(안)’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협력기관의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내 ESG 경영 관리지표 유무 여부를 확인해보았으나 개발협력기관에 특수성을 반영한 의미있는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향후 개발협력기관의 ESG 관련 사업관리 지표를 개발하게 되면 해당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신규 ESG 관리지표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관리지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제시한 지표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단계별 도입해야 하는 지표를 설명하고자 한다.

〈표 31〉 개발협력기관의 ESG 경영 관리지표(안)

Category	Index	Requirements
	Index Title	진단항목
환경	에너지	에너지 사용
		에너지 집약도
	용수	용수 사용량
		용수 재활용 및 재사용
	온실가스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	질소산화물 배출
		폐기물 발생
	생물다양성	활동, 제품, 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사회	근로자 권리	임직원 다양성
	노동 인권	인권 정책
	인적자원 개발	임직원 훈련 및 개발
		교육 프로그램
	인적자원 관리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신규채용 및 이직

Category	Index	Requirements
	Index Title	진단항목
사회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관리
		임직원 산업재해 관리
	사회공헌	사회공헌 전략
		지역사회 참여, 영향평가 그리고 발전프로그램 운영 비율
경제 및 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구조
		이사회 임명 과정
		구성원 및 CEO 보수공개
		보수 결정 절차
	리스크 관리	리스크 대응
	반부패/윤리경영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부패 위험 평가
		윤리경영 지침 및 적용 범위
	공급망 관리	공급망 지원
		협력사 ESG 정책

자료: 저자구성

경제 및 지배구조 영역은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반부패/윤리경영, 공급망 관리로 4가지 분류로 정리하고 10가지 진단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경제 및 지배구조에 해당하는 ESG 경영지표는 국내 공공기관의 특성상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리지표와 국내외 지배구조 평가체계의 공통사항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관 조직경영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다. 이사회 구조, 이사회 임명 과정, 보수 등 관련 내용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어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직경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의 경우 ESG 종합 리스크 관리와 연계되어 준비될 필요가 있으며 기관의 운영에서 마주하게 될 리스크의 유형을 분석하고, 시급성 및 영향도에 대한 분석, 리스크별 대응 전략 수립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반부패 및 윤리경영은 관련 정책과 지침을 적용하고, 교육과 훈련의 진행은 국내의 ‘부패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에 관한 법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급망 관련하여 협력사의 ESG를 지원하고, 교육하는 등과 같은 활동은 공공기관의 역할로 기대되는 부분이고 개발협력기관의 특성상 다양한 협력사(파트너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공급망 실사까지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항목의 수를 늘려가며 관리지표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환경 영역은 에너지, 용수, 온실가스, 폐기물, 생물다양성으로 5가지 분류로 정리하고 10가지 진단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국내외 평가체계와 공공기관 및 해외 원조기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에너지, 용수, 폐기물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에 관한 항목으로, 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이라는 영역의 특성상 진단항목 전반적으로 사용량 또는 배출량을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감축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재활용하는 양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집약도의 경우 사용량 또는 배출량의 정보관리 시 매출 또는 인원수 등의 기준으로 원 단위를 관리하여 증감 추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생물다양성의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생물다양성법)'의 대응 수준이라면 관리항목에 적용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사회 영역은 근로자 권리, 노동인권, 인적자원 개발, 인적자원 관리, 산업안전보건, 사회공헌, 이상 6가지 분류로 정리하고 10가지 진단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항목별 선정 이유는 임직원 다양성의 경우 인원의 구성 현황과 같이 남녀 비율뿐만 아니라 장애인, 다양한 인종, 성소수자 등의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개발협력기관은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표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인권 정책은 국내외 인권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지, 각 정책 및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관리해야 하므로 선정하였다.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는 신규직원 및 퇴사자 관리, 임직원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정보관리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일반적인 경영 지표의 하나로서 관리되고 있는 항목이므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로 국내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회공헌의 경우 개발협력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항목으로 판단되며 사회공헌 전략,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등 UN SDGs와도 연계할 수 있다.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KOICA는 ESG 경영지수를 통해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모니터링하고자 ESG 경영지수를 산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OICA의 기존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앞서 분석한 지표 체계 및 사례를 참고하여 몇 가지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K-ESG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각 부문별로 예를 들어보면, 환경(E)에서는 '환경경영 목표 수립', 사회(S)에서는 '안전보건 추진 체계', 지배구조(G)에서는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여부' 등이 있을 것이다. 또한 타 공여기관과 같이 사업성과지표에서 적용가능한 지표를 선택 혹은 준용하여 새로운 지표로 신설할 수도 있다. KOICA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통해 SDGs를 달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분야별 사업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SDGs와 ESG는 지속가능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보는 견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SDGs의 17개 목표를 각각 E, S, G로 구분하기도 한다. 따라서 KOICA의 SDGs 달성을 지원하는 활동이 ESG 이행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에서의 ESG 이행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지표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KOICA는 SDGs 성과프레임과 연계하여 분야별 성과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폐수 비율, 재생에너지 등 ESG 경영과 일치하는 항목들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사업성과지표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으나,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표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몇 가지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32〉 KOICA ESG 경영지표 제안 예시

분야	지표명	지표 측정 방식
환경 (E)	환경목표	1. **환경경영 목표 수립** : 환경경영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단기/중장기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및 이행점검을 위한 지표를 정의하고 있는지 측정 2. **환경경영 추진 체계** : 조직이 환경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사 거버넌스', '전사 전담조직', '이행현황 점검 시스템' 등의 구축 여부를 측정
사회 (S)	ESG 정보공개 및 국민소통	1. **이해관계자 소통** : 대국민 소통 채널 및 제공되는 정보의 다양성 측정,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 및 체계 보유 여부 측정 2. **ESG 정보공시** : 사회 분야 핵심 이슈에 대한 중장기 목표 설정 여부, 정성 및 정량적 목표 포함 여부, ESG 전략 및 중장기 목표 수립, 관련 정보 공개 여부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지난 5개년간 개인정보 보호 위반 내역 여부 및 해결 방안, 정보보안 관련 사고 대비 체계 구축 여부, 관련 사항 내부 임직원 교육 실시 등 4. **고객만족 강화** : 고객불만 처리 관련 규정 존재 여부, 전문 담당 조직 설치 여부, 고객 불만(VOC)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체계성 측정, VOC 관리 지표,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 여부

분야	지표명	지표 측정 방식
사회 (S)	안전 및 직원 관리	1. **안전 및 건강관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 정책 및 과제 이행현황 평가, 관련 개선사항 도출 여부 2. **직원 관리** : 직원 이직률 관리 여부 & 지난 5년간 이직률 추세 / 여성 구성원 비율 및 여성 급여 비율, 육아휴직 사용 임직원 현황 등 3. **노사문화 및 근로환경** : 노조 가입 및 설립 관련 정보 확인,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등 실시 여부, 임직원 근로환경 개선 의견 수렴 제도 여부 4. **인권경영** : 대외적으로 인권경영 선포 여부, 인권관련 이슈에 대해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 설정 여부 5. **임직원 역량 강화** : 직원 교육훈련비&복리후생비 증감 여부, 지난 5년간 추세
	동반성장	1. **동반성장** :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반성장평가 지표에 따라 달성여부 측정 2. **사회공헌활동 강화** : 사회공헌 프로그램 구축 여부, 성과관리 지표 여부 3. **협력사 ESG 경영** :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여부, 진단 및 현장실사 실시 여부, 리스크 개선계획 및 활동 추진 사항 측정. 협력사 ESG 지원에 대한 성과관리 지표 달성 투자 여부
지배구조 (G)	이사회 활동	1. **사내이사 출석률** : 직전 회계연도에 개최한 이사회에 대해, 개별 사내이사의 참석률을 평균하여 측정
	윤리경영	1. **윤리경영/반부패 관련 법규/행동강령 등 준수** :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관련 법규, 행동강령 및 실천규범 위반 사례를 확인 2.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 발생한 윤리규범 위반 건수 및 관련 구성원 수, 윤리규범 위반 내용, 위반에 따른 처벌 및 관련 구성원 처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활동을 공시하고 있는지 측정
	감사기구	1. **내부 감사부서 설치** : 조직 내 감사부서 설치, 감사위원회 지원하는 부서 및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는지 측정
	지배구조법/규제 위반	1.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여부** : 조직의 지난 5개년 간 조직의 지배구조 관련 법/규제 위반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 점인지 확인

자료: 저자작성

각 지표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E)의 환경목표는 조직의 환경경영을 위해 목표를 수립하였는지 체계적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는지 내부환경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사회(S)의 ESG 정보공개의 경우 소비자가 기업의 ESG 정보 접근에 있어 양질의 정보를 얼마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해 평가하며, 국민소통 및 고객만족 대응 체계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측정한다. 또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여러 활동을 평가하여 조직이 이해관계자의 정보보호에 얼마나 힘쓰는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둔다. 안전 및 직원 관리는 조직의 안전보건 관리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정책 및 규정,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조직이 UN의 '세계인권선언' 및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그리고 ILO 및 OECD 등에 기반하여 인권경영을 추진하는 대외공식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진단한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직원관리, 노사문화 및 근로환경 개선, 임직원 역량강화 등의 부분도 고려하여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는지 측정한다. 동반성장은 조직이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 및 협력사 ESG 지원 등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동반성장 활동을 통해 기관의 ESG 경영이 파트너사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를 평가한다.

지배구조(G)의 이사회 활동은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 구성 인원 중 사내이사의 출석율을 측정한다. 윤리경영은 조직 구성원의 윤리 규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수립하고 있는지 혹은 위반 시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등의 내부 노력을 진단한다. 감사기구는 조직 내부의 감사부서가 독립적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은 지배구조 리스크 해결을 위한 제도와 활동을 도입하였는지, 나아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감사기구 및 운영, 경영정보 공시 등의 요건 위반에 따른 감점 발생을 점검한다.

이 외에도 본부에서 기관 운영 측면에서만 보여진 기존의 ESG 지표를 확대하여 사업에서의 ESG 이행을 함께 포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직원 및 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사업 관련 교육, 사업 현장에서의 안전교육, 혹은 반부패, 윤리, 청렴, 양성평등 교육 등을 지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을 진행 시 사업과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을 구분하여 이해관계자별 사업 공유에 대한 채널 구축, 공유활동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수행 시 잠재적인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설계 프로세스 초기 단계에서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표화가 가능할 것이다. 사업 외에도 부여되는 IATI 등급에 따라 투명성 제고, 이해관계자 소통, 정보공시 등으로 지표에 반영이 가능할 것이다.

K-ESG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사업지에서의 ESG도 포함하고 있다. KOICA의 경우 사업지가 국내가 아닌 협력국이라는 차이점은 있겠으나, ESG 이행을 국내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바, 개발협력사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ESG 이행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환경(E)의 경우 K-ESG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협력국의 탄소중립 촉진 정책·제도 채택 및 단기/중장기 목표 설정

등의 환경경영 목표 수립 여부를 진단해볼 수 있다. 또한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저감 추세에 있는지 온실가스 기대감축량을 측정해 볼 수 있다. 사회(S)의 경우 현재 KOICA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대표적 역량강화 사업에서의 다양성과 양성평등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역사회 공헌은 협력국 농어촌 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지원액 증감 여부 또는 미래세대 성장을 위한 교육 활동의 규모 및 증가율을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시사점

ESG는 기업의 투자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윤 창출 외에도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요소에 기반하여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를 포함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또한 지속가능성 및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ESG는 사회 곳곳에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다만, 민간기업의 ESG를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방향에서 시작된 공공기관의 ESG 이행은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목적과 활동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더욱이 ESG 이행은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지표에 의해 평가되고 있기에, ESG의 모호함 속에 공공기관의 특성을 지표에 반영하는 데에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KOICA는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SDGs 달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ESG 공시를 확대하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강화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에 KOICA는 ESG 경영을 선포하고 ESG 경영지표를 통해 이행현황을 관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의 ESG 이행 및 적극적인 참여에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며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SG를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KOICA의 경우 기관의 목적에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ESG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의 ESG 이행을 평가하는 항목 관점에서는 KOICA의 사업 수행에 따른 SDGs 지원 활동이 반영되지 않기에 기관 운영 차원에서는 새롭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ESG 이행을 평가하는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KOICA와 유사한 형태의 공공기관과 해외 개발협력기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향후 적용 가능한 관리지표를 예시로 제안하였다. KOICA는 개발협력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써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니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발협력기관의 ESG 이행은 기존의 SDGs 달성을 지원하는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ESG 이행은 기관의 사회문제 대응력 및 지역사회로의 공헌의 척도가 되어 기관의 이미지와도 연결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ESG 이행이 투자 위험 관리이자 환경과 사회 전체에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KOICA는 ESG 이행을 통해 본부

뿐만 아니라, 해외사무소 및 개발협력 사업지에서의 위험을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ESG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조직 운영 차원의 평가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ESG 이행 및 참여자에 ESG 인식 제고 및 ESG 확산에 대한 평가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개발협력기관의 ESG 경영 관리지표(안)'은 현 시점에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일부를 제시한 것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향후 중대성 평가를 통해 기관의 중요한 과제 중심의 지표 구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SG가 대두된 배경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이다. KOICA는 개발협력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참여자들의 ESG 이행을 지원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개발협력을 이행하고자 하는, 다소 특수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ESG 이행 관리지표 또한 일반적인 기관과는 달리 상당한 차별이 요구되며, 협력국의 상황 및 국제 정세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검토를 통한 지표 개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철구, 유혜선. 2022. 공공기관 ESG 첫걸음은 맞춤형으로. 경기연구원

관계부처 합동. 2020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회입법조사처. 2021.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생태계 조성 및 입법정책 과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2023.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제정-

기획재정부. 2023. 공공기관 통합공시(Alio) 전면 개편

김환이. 2022. “EU위원회,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DRD) 최종 승인”,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43 접속일 2023.04.30.

대한상공회의소. 2022. ESG A to Z

박란희. 2022. “EU, 기업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13개 초안 발표”,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971 접속일 2023.04.30.

박영석, 이효섭. 2021. 기업의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자본시장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2021. K-ESG 가이드라인 v1.0

산업통장자원부. 2021. “우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합동‘K-ESG 가이드라인’발표”보도자료. 12.1

삼정KPMG. 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손수득, 김용덕, 이성기. 2021. 공공기관 ESG 지배구조(G) 추진 전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송준호. 2022. 국민연금의 ESG 정보 입수율 환경 43.1%에 불과해...투자 판단 왜곡 가능성 높아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96 접속일 2023.7.26.

심기문. 2023.“ESG 최하등급 상장사 17배 폭증…기업현실 고려 안해 아우성”, https://www.

sedaily.com/NewsView/29KNWLC73Z 접속일 2023.4.30.

오세경. 2022. 주요국의 ESG 성과 평가 실태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정민, 김고운, 윤서연, 주재욱, 김정아, 함수한. 2022. 기후위기 대응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서울연구원

이인형. 2021. ESG 평가 체계 현황과 특성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이정기, 이재혁. 2020. "지속가능경영" 연구의 현황 및 발전방향: ESG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전략경영연구

이주관, 김종덕, 문진영, 엄준현, 김지현, 서정민. 2021.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준서, 임새훈. 2022. E.S.G 법제 정책연구(Ⅱ) - K-ESG 가이드라인을 통한 E.S.G. 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이태호, 김광기, 황성주, 전대현. 2022. 공공기관 ESG 현황과 경영전략: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앤장. 2021. 글로벌 기준으로 본 ESG 경영 사례집-분야별 국내외 ESG 사례

한국ESG기준원. 2023. 2023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체계 개편 설명자료

한국거래소. 2021.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22. 2021 ANNUAL REPORT

한국금융연구원. 2019. 국내외 사회적 책임투자 사례 분석과 시사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2022. 2022 한국 ESG 금융 백서 지속가능금융대장정, 그 길에 오르다

한국표준협회. 2021. ISO.IEC 국제표준 100 가이드

홍은경, 김선영, 김수진, 송민재, 최민호. 2018. 2018 주요 공여국의 원조 현황 및 실시체계. 한국국제협력단

AFD. 2018. AFD GROUP'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Y 2018-2022

AFD. 2022. Activit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Austrian Aid. 2019. ENVIRONMENT AND SOCIAL SAFEGUARD POLICY

CODO, wbcsd. 2018. Enterprise Risk Management

DFAT, Austrian Aid. 2019. Climate Change Action Strategy

DFAT. 2022. Annual Report 2021-2022

EFRAG. 2022. Draft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_Appendix I Disclosure Requirements index

GISA. 2021.“2020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Hwang, J., Kim, H., & Jung, D. (2021). The effect of esg activities on financial performa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evidence from korea. Sustainability, 13(20), 11362.

KOTRA. 2014. KOTRA 국제개발협력사업 가이드북

KOTRA. 2022. 2021 KOTR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MSCI. 2022. ESG RATINGS METHODOLOGY Executive Summary, MSCI ESG Research LLC

MSCI. 2023. MSCI ESG Ratings Methodology, MSCI ESG Research LLC

Russell Investments. 2021. 윤리경영(INTEGRITY)

S&P Global. Weights Overview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2023

UN. 2004. Who care wins

Van Duuren, E., Plantinga, A., & Scholtens, B. (2016). ESG integration and the investment management process Fundamental investing reinvented. Journal of Business Ethics, 138, 525-533.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World Economic Forum. 2019.“The Global Risk Report 2019”

WORLD ECONOMIC FORUM. 2023.“The Golbal Risks Report 2023 18th Edition”

Zhou, D., & Zhou, R. 2021. ESG performance and stock price volatility in public health crisis: evidence from 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 202.

웹사이트

서스틴베스트 홈페이지 https://www.sustinvest.com/

한국 ESG 기준원 홈페이지 http://www.cgs.or.kr/main/main.jsp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https://www.kofih.org/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s://ncsd.go.kr/unsdgs

구글 홈페이지 https://www.businessfor2030.org/google

유엔글로벌콤팩트 http://unglobalcompact.kr/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홈페이지

Chttps://www.coso.org/

GRI 홈페이지 https://www.globalreporting.org/

PRI 홈페이지 https://www.unpri.org/

S&P Global 홈페이지 https://www.spglobal.com/esg/csa/

WORLD ECONOMIC FORUM ESG Ecosystem Map

연구자료
연구정보 2023-11-412



KOICA
한국국제협력단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번지
Tel 031-740-0114 Fax 031-740-0655 http://www.koica.go.kr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